

윤석열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동포들이 한미 '과학기술동맹' 발전에 계속해서 힘을 보태 주기를 기대"

APEC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현지 시각 11. 15, 수) 현지 동포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샌프란시스코와 그 인근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15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 네 번째로 미국을 방문했다면서, △지난 4월 국민 방미 시의 '워싱턴 선언' 도출 및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비전 구체화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3국 협력 체계 출범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의 격차 해소와 상생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제안 등 그간의 방미 성과를 소개하고,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도 한미 양국은 혁신과 포용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는 양국이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새로운 동맹 70년을 향해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120년 전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들이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미국 본토에 정착했음을 상기하고, 미국 본토 한인 역사의 출발점인 샌프란시스코 동포들이 한미동맹 발전 과정에서도 크게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동포들의 활약은 미국 내 한인들의 권익 증진에 물론, 우리 첨단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동포들이 한미 '과학기술동맹'의 발전에 계속해서 힘을 보태 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한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이민 12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샌프란시스코는 우리 한미 이민 역사의 중심이자 맹주라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이어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와 북가주 한인들은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업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과 김건희 여사의 문화 향유를 통해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모습을 공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각각의 다양한 경험과 소감을 허심탄회하게 소개했다. 박세혁 몰로코(Moloco) 대표(공동창업자)는 머신러닝과 디지털 광고 기반의 스타트업에 창업해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



는 몰로코가 600여 명의 직원 중 절반 가량이 한국 사람인 '한국인 기업'이며, 지난 10년간 사업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국인 커뮤니티나 인맥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브랜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실리콘밸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영수(Perry Ha) 한인커뮤니티재단(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 샌프란시스코 지부 이사장은 고등학교 때 동양인이 두 명밖에 없는 학교로 이민을 와서 힘들게 공부한 끝에 실리콘밸리 한인 벤처투자자 1세대의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과거를 회고하고, 이러한 자기 경험에 비추어 한인 미래세대의 성장을 돕고자 한인재단을 통한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하 이사장은 그동안 한인들이 창업한 회사 중에서 대어섯 개의 유니콘 회사가 탄생했고, 한인 연방하원의원 4명이 정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등 미국 내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국 한인 사회가 '희생의 시대'와 '안정의 시대'를 지나, 본격적인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기령 KCI(Korean Center Inc.) 관장은 한인뿐만 아니라 현지 미국인들

및 언론 등 약 15,000명이 참여한 '추석 페스티벌'을 개최해 현지인들의 큰 관심을 얻은 경험을 소개했고, 데이비드 리(David Lee) K-Group 공동대표는 실리콘밸리의 한인 전문직 종사자들 간의 커뮤니티 구축 경험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실리콘밸리의 한인들이 현지에서 '모범 시민'으로 활약하면서 대한민국의 긍지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오늘 간담회에는 미국 내 한인 최초의 직선 시장(캘리포니아 어바인시) 출신인 강석희 美 연방 조달청 지역청장, 한인 최초 미국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황규민 젤라인(Xeline) 회장, 한인 최초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창업자 Corey Lee 셰프, 고교 재학 중 도미하여 미국 3대 발레단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로 활동 중인 박민우 무용수 등 다채로운 이력을 가진 동포 다수가 참석했다.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러분들이 단결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발전하는 그런 동포 사회를 이루어 가고 계신 모습을 보니 정말 아주 뿌듯하고 정말 든든하다고 재미 동포를 만난 소회를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지난 이탈리아 대통령의

국민 방한 때 이탈리아 대통령이 말하길, 한국과 이탈리아의 가장 큰 공통점은 세계 각국에 재외동포 사회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세계 각국에 있는 한국 동포 여러분들은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재외동포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또 다른 나라든 간에 우리나라는 혈통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고 우리 자산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재외동포청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전 세계의 우리 한인 동포들을 아주 촘촘하게 연결해서 각자의 직역별 분야별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면서 특히 우리 동포의 미래세대, 청년 동포들을 더 잘 연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후,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한인 동포 청소년들로 구성된 합창단 퍼시픽 콰이어(Pacific Choir)가 동포 사회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Let There Be Peace on Earth를 노래해 대미를 장식했으며, 대통령 부부는 공연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환담을 하며 따뜻하게 격려했다.

최광수/기자

경기도 김동연, 고국 방문한 재일민단 가나가와현 지방본부 대표단 초청. 협력방안 논의

김동연 지사, 재일민단 가나가와현지방본부 대표단과 도담소에서 간담회 실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고국 연수를 위해 한국을 찾은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가나가와현 지방본부 대표단 30여 명을 도담소에 초청해 재일민단과의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김동연 지사가 지난 4월 일본 가나가와현을 방문했을 당시 민단 가나가와현 지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로 초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성사됐다.

김 지사는 "제가 꼭 한국에 오시면 한번 다시 뵙고 싶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다"며 "최근 일본 내 혐한운동에 대응하기 위해 헤이트 스피치 관련 운동을 민간 중심으로 추진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들었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미래를 보고 함께 나아가야 할 관계라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도와 가나가와현 간의 오랜 우정을 기반으로 한일간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민단 여러분들께서 좋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순재 재일민단 가나가와현 지방본부 단장은 "가나가와현과 경기도는 1990년부터 우호관계를 계속해서 30년 시간이 지났다. 10월에 코리아 한일 시민교류마당을 개최하는데 매년 경기도에서 무용단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계속해서 가나가와현과 경기

도 그리고 저희 민단이 우정을 나누고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민단 가나가와현지부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매년 8월 15일 일본에서 열리는 광복절 기념식과 10월 한일시민교류마당에 경기도 예술단을 파견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1994년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있는 미쓰이케공원에 건축비 20억 원을 들여 '코리아정원'을 조성해, 내년이면 정원 조성 30주년을 맞이한다. 이곳에서 매년 10월에 열리는 축제 '한일시민교류마당'은 이틀간 방문객이 2만 명에 달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며, 김치 만들기, 한복 및 전통놀이 체험, 이천도자기 체험, 경기도 홍보버스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한국문화와 함께 경기도의 우수한 문화관광예술 분야를 알려 나가고 있다.

또 경기도는 민단 가나가와현지부가 추진하는 재일동포 어린이 모국방문 시 전문문화 체험과 홈스테이 가정 연결을 지원하는 등 재일동포들에게 전문문화를 전파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해왔다.

지난 4월에는 일본을 방문한 김동연 지사가 재일민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일 간 정치 관계를 떠나 문화·인적·민간교류를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으기도 했다.

김병삼/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서명운동 100만 명 돌파

서명운동 두 달여 만에 120만 6,355명 서명 동참
 260만 도민의 APEC 경주 유치 열망과 결집된 의지 반영
 12월경 공모에 앞서 외교부 서명 전달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에 대한 전 국민적 열원이 불과 두 달여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경북도와 경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16일 기준으로 총 120만 6,355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희망 포럼'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출정 퍼포먼스를 통해 본격적인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린 지 불과 2개월 조금 넘는 기간에 120만 명을 훌쩍 돌파한 것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이철우 시



의장, 박용룡 범시민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서명운동 참여기관·단체와 100만 서명운동 서포터즈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인 기념행사를 가졌다.

신라시대 군악과 의장대의 모습을 재연한 신라고취대 공연과 함께 시작된 기념행사는 APEC 정상회의 유치시회의 의장이 될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건물 전면 100만인 서명 달성을 기념

하는 초대형 현수막 제막 퍼포먼스를 통해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였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100만인 서명달성은 그동안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 경주시, 22개 시군과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는 물론 100만인 서명운동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응원과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특히,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앞서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도 내 시장군수의 지지 서명을 시작으로 도에서는 각종 시군회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해 민주평통자문회의의 경북지역회의, 지방시대정책위원회 출범식, 농업인의 날 행사 등 각종 도 관련 행사

에서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쳤다. 유관기관과 단체의 서명 활동도 끊이지 않았다. 경주시의 자매도시인 익산시시는 지역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통해 1만 명 서명부를 전달했으며, 농협 경주시지부에서도 대구·경북지역 농협과 연계해 3만 8천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동국대WISE캠퍼스, 워덕대, 경주대 등 지역대학을 비롯해 경주시홍보자문위원회,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각종 유관단체와 읍면동 자생단체에서도 지역 행사와 축제장은 물론 전국적으로 서명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했다.

자원봉사 서포터즈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신경주역과 황리단길, 동부사적지 등 주요 관광거점에서 100만인 서명 홍보버스 운영을 통해 서명운동과 유치 홍보 활동을 병행했으며, 각종 행사와 축제장 서명 버스 봉사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참가해 서명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달까지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에 앞서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추진위원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두 달여 만에 100만인 서명 달성은 2025 APEC을 반드시 경주에서 열려야 한다는 260만 도민의 열망과 의지가 얼마만큼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내년 상반기 최종 선정 시까지 전 도민, 출향인 등과 힘을 합쳐 대국민 홍보와 유치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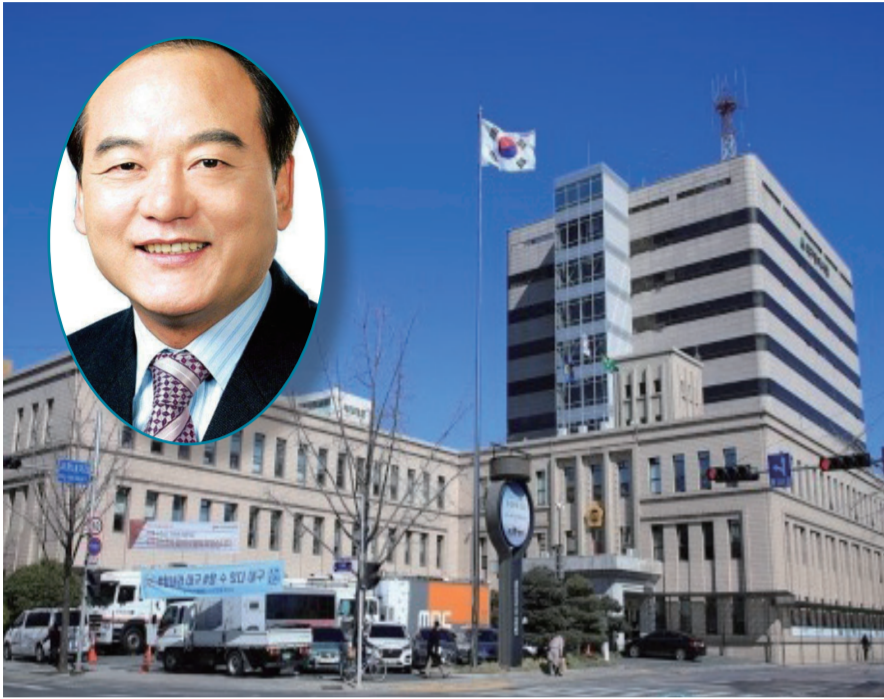
한편,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에 대한 시도민과 전 국민적 관심을 확인한 만큼 향후 공모신청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범시민적 유치를 더욱 결집하고, 유치 공과대외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더욱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대구정책연구원 1년간의 홀로서기 어땠나!

17일(금) 대구정책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끝으로, 14일간 대장정 마무리
울 2월 정식 출범 대구정책연구원 정상 운영 여부 중점 들여다봐
경영정보 공시, 연구보고서 공개,
연구원 대외활동 기준 마련 등 내부 정비 서둘러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7일(금), 대구정책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2월 첫발을 내딛은 대구정책연구원의 홀로서기를 점검해 보고, 미 완료된 연구원 채용, 연구보고서 공개 부실, 연구원의 지나친 대외활동 등 정책연구원 내부 정비와 기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꼬집었다. 아울러, 정책연구원 연구 결과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를 특별히 주문하며, 14일간 이어진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전태선 부위원장(달서구6)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연구과제 및 연구보고서를 연구가 끝난 후 1개월 내 공개하도록 돼 있음에도,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고, **박우근 위원**(남구1)은 대구정책연구원이 구·군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받는 수탁연구과제의 선정 과정과 적정규모에 대해 따져 묻고,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줄 것과 연구의 품질 제고를 강조했다. **김대현 위원**(서구1)은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가 대구시 입맛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는 형식논리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며, 연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갖추어야 함을 강조, 연구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대구경북연구원 시절의 연구 DB가 대구정책연구원에 공유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자료이관 등의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이성오 위원(수성구3)은 「연관융합형 정책 싱크탱크 모델」을 내세워 시에서 파견하고 있는 다수의 간부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평균 3달에 불과한 파견 기간은 시와 정책연구원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일부 연구원의 대외활동 빈도가 잦음을 지적하며,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대외활동 세부기준 마련을 촉구했으며, **류종우 위원**(북구1)은 대구정책연구원 출범 이후 예산집행과정에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음을 지적하고, 특히 일부 품목의 경우 특정업체와의 계약이 집중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업무과중을 불러올 수 있는 외부수탁과제의 명목적 선정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임인환 위원장(중구1)은 계획된 연구원 채용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이어서 '23년 예산의 세입과 세출이 실제와 큰 차이가 나는 점을 묻고, 향후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메타버스 정책의 존폐 여부 결정 촉구, 출자출연기관 통합 신중한 접근 주문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5일, 메타버스과학교육, 투자유치실, 경제산업국,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벌여 모두 5일간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메타버스과학교육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형식**(예천)의원은 대내외에 ‘메타버스 수도’를 표방, 전국 두 번째로 많은 메타버스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을 뿐더러 직원조차 잘 모른다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고, **최병근**(김천)의원은 도청에 설치된 메타버스 체험관이 13억원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금년 방문객 실적이 4,200여명, 하루 평균 12명에 그쳤으며 예산 대비 이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의 지속 여부를 묻고 획기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박용선**(포항)의원은 우후죽순 시작하는 치킨점, 노래방처럼 경쟁적으로 서로 달려드는게 지방 정부의 현실이라면, 메타버스에 강한 타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오히려 경북이 더 강한 분야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 경북 특화사업에 집중하도록 메타버스 사업 전면 검토를 주문했다.

또, **김진업**(포항)의원은 2022년부터 운영 중인 메타버스 아카데미와 관련, 22년 대비 23년도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참여 인원은 절반으로 줄었다 지적하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교육적 성과도 거둘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이선희**(청도)의원은 최근 글로벌 콘텐츠 기업 월트디즈니의 메타버스 전략 부서 해체 등 국내외 대기업도 메타버스 투자와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예산 투입에 대한 적정성 및 대안, 방향성 등을 집중 추궁하면서, 게임 산업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의 적격여부에 대한 기준을 발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일한 사업임에도 매년 사업명이 바뀌고 계획도 부실한 것은 집행부의 방향 설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집행부의 안이한 업무 추진을 질타했다.

강만수(성주)의원은 메타버스체험관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방문객에 대한 분석조차 없는 등 소규모 체험관조차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서 거창하게 메타버스 수도를 표방한다고 질타하며 전국 유일의 ‘메타버스과학교육’ 명칭을 아예 ‘메타버스’를 삭제하라는 주문을 하며 신랄하게 비판했고, **이춘우**(영천)기획경제위원장은 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메타버스 사업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하려는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하며 추진과정에서 무리하게 도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반납하는 등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투자유치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형식**(예천)의원은 최근 원주에서 입점 추진 중인 참고형 대형마트처럼, 경북 북부권에도 참고형 대형마트 입점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 차원에서 마련해 보라고 주문했고, **김대진**(안동)의원은 시군별 공동 MOU 체결내역 내용에 따르면 주요 투자유치 활동 지역은 구미, 포항, 경주이고 체결 건수와 투자금액 역시 남부권에 편중되어 타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고려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북도 내 균형적인 도시 성장과 외부인구 유입, 도시소멸 방지 등을 위해 북부권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성만(영주)의원은 의원들이 해외

시장 개척, 투자유치 활동 등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꼬집었고, 다른 지자체가 시도하지 않은 잠재적 해외시장을 경북이 선제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이를 면밀히 살펴 향후 재건사업에 경북이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대책 마련을 제안했고, **이춘우**(영천)기획경제위원장은 메가시티와 관련, 경북도의 대응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중앙정부 동향 등을 반영한 동·서·남·북부권의 발전 로드맵을 새롭게 정립, 장기 미래발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산업국·교통문화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용선**(포항)의원은 경북 공공배달앱 ‘막개비’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과 동시에 본사가 경기도에 있는 회사를 도가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사업 폐지를 주문하고 그 사업비로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유용한 사업이 진행돼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비 수준의 영업이익도 내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은 문제라며 경영자문 지원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각도 지원 노력을 촉구했고, **김대진**(안동)의원은 산업용 헬프 규제사무감사 등 관련해 올해 기업 7곳의 이탈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헬프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와 시급하며 산업용 헬프 규제사무감사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리와 헬프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촉구 등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김창혁(구미)의원은 ‘글로벌 온라인 입점사업’과 관련, 지원 업체사작을 뿐만 아니라 홍보 부족으로 실제 지원을 원하는 기업이 사용 내용을 몰라 신청을 못하는 사례를 지적, 사업주체인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청년 지원 예산에 비해 가장으로서 중요한 시기인 신년연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매우 부족하다고 사업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고, **최병준**(경주)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우 유치와 관련, 경북도의 역할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경주 유치의 장단점 파악, 장점은 부각, 접근성 등 단점은 해소돼도록 주도면밀한 지원 체계 및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했으며, **강만수**(성주) 의원은 TP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통합 관련, 통합의 시너지와 부작용 등을 다각도로 연구해야 하는데 통합에만 급급하여 철저한 준비과정 없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 하며 양 기관과 충분한 협의, 의회와 소통 등으로 충분한 검토 후 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의원은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관련 상당부분 누락된 자료가 많 다며 개선을 주문했고, 경제산업국 펀드 관리와 관련, 운영기간이 종료된 펀드에 대한 정보, 회수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없는 점을 지적, 도민 혈세로 투자되는 펀드 전반에 대한 철저 한 관리와 펀드 운용 실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기획경제위원장은 경제산업국은 민생 관련 도 핵심 부서임을 강조하며 분발을 촉구

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과 TP의 유사·중복 사업이 대다수이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일부 사업은 도민 혈세로 경북의 지역 청년들을 발굴해 창업 지원을 한다고 지적하며 전반적 사업 점검이 필요함을 주문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과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부산시의회, ‘부산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모임(이하 뿌리산업 연구모임)은 지난 17일(금)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에 착수했다.

최종보고회에는 연구진뿐만 아니라 부산의 대표적인 뿌리산업인 금형산업과 표면처리 조합 관계자(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이수근 이사장, 부산표면처리협동조합 허상태 전무이사), 부산시 미래산업국장 및 제조혁신과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정책연구용역에서는 6대 뿌리산업 중 금형, 표면처리, 소성가공 등 부산지역 핵심 뿌리산업에 대해 121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뿌리산업 업종별 전략을 수립하였다.

서영호 교수(연구책임자, 동의과학대)는 ‘뿌리산업 메카 부산을 글로벌 산업 혁신의 중심으로’를 비전으로 ‘부산 뿌리산업 고도화 기반 글로벌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뿌리산업 클러스터 강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뿌리산업 글로벌 인재 육성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강화 등 4대 정책 목표와 16대 핵심과제를 제안했고, 또, ▲뿌리 기업 가공정정 디지털

전환 종합지원 사업 ▲부산지역 중소기업 지원 통합 간담회 개최 ▲뿌리산업 전문가 육성 교육·연수사업 등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 의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16대 핵심과제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세부 추진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부산 뿌리산업 진흥 조례」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조상진 대표의원은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를 도출해냈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도화하는데 연구단체의정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경덕 미래산업국장은 “부산 뿌리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고,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데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고 밝혔다

뿌리산업 연구모임은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실무적 실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조상진 의원을 대표로 김광명, 송상조, 이종환, 신정철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희태/기자

봉화군의회, 제124차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김상희 의장, “봉화군을 방문해주신 시군 의회 의장님께 환영과 감사 말씀을 드리며, 오는 겨울 개장되는 한겨울 분천산타마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해”

봉화군의회는 지난 16일,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누정전시관에서 제124차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는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봉화군의회가 주관해 도내 10개 시군의회 의장들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중요 현안과 의정활동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각 시군의회 상호향과 정보를 교환하며 경북 북부지역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상희 봉화군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봉화군을 방문해주신 시군의회 의장님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는 겨울 개장되는 한겨울 분천산타마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면서 이어 “오늘 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화합과 협력이 바탕이 돼, 경북 북부지역이 상생하고 상호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임성경 청소년책임보좌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케 이 언 부:내선 (118)
	스 포 츠 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힐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GH 공공성 살린 분양가 결정 아니었어” 아쉬움 표해

도시주택실, 계획 수립의 미흡과 사업방식 전환시 충분한 안내 부족에 유감 표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17일 진행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3일과 14일에 있었던 각각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답변을 확인하며, A94블록의 분양가에 대해 GH의 공공성을 살린 결정이 아니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에게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동탄A94블록의 분양방식 변경에 대한 사과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이 실장은 “2019년 당시 100% 후분양 방식으로 사업을 결정했던 부분이 계획수립 단계에서 의욕에 앞서 검토가 미진했던 점, 실용성을 감안하여 공정을 60~80% 선으로 분양시기를 변경하면서 기 제공된 정보와 달라진 부분을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홍보하지 못했던 부분,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소통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

며 도의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세용 사장은 “이 사업과 관련된 기타 조치결과나 사과는 없다.”고 말하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김태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는 분양가상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상으로 최종 분양가를 산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최종 분양가 결정권자에 대해 질의했고 “GH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장이 결정하나 동탄A94블록의 경우 그 앞선인 본부장이 결정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확인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1차 분양가상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보다 2차 분양가상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이 증액됐는데, GH는 공공주택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1차 분양가상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최종 분양가를 정했다 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동탄A94블록은 최초 동의안에 있는 내용과 같이, 도입취지가 저렴한 가격



으로 고품질의 주택을 분양한다는 것인 만큼 민간과 다르게 공공에서 저렴하게 공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발언에서 김태형 의원은 GH의 경영평가와 성과급에 대해 언급했고 “동탄A94블록 사업은 2023년 GH 매출액 약 2조 원 중 5천억 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어 달성하지 못할 경우 경영평가의 정량평가 부분

이 낮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성과급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 판단해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말하며, “성과급은 ‘하후상박(下厚上薄)’에 따라 애쓰는 직원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하며 2023년 도시주택실과 GH의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김범상/기자

산단 지붕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첫 번째 ‘경기 RE100 산업단지’ 탄생

산업단지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를 생산하는 첫 번째 ‘경기 RE100’ 산업단지가 경기도 화성시에 조성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정명근 화성시장,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 신동진 한화솔루션 신사업부 부부장(대표)과 ‘경기 RE100 산업단지(H-테크노밸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소프트랙 선수가 상대방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코너를 돌 때가 기회라고 한다”면서 “기후 변화 문제가 전 세계의 흐름으로 봐서 크나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주어진 절호의 기회이고,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지금 신재생 관련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의 고사지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며 “전 세계가 중요한 코너를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 같이 힘을 보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진 한화솔루션 인사이드 부부장(대표)은 “경기RE100을 시작으로 탄소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솔루션을 산업단지에 본격 도입하겠다”며 “한화솔루션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적용해 이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테크노밸리는 화성시 양감면 일원에 73만6천㎡ 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자동차 특화 산업단지로 내년 분양을 시작해 2027년 입주 예정이다. 한화솔루션이 화성도시공사와 지난 2021년부터 준비해 온 산단으로 물량을 이미 배정받은 신규 산단이지만, 경기 RE100 정책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내 최초로 민간기업이 자체 투자해 에너지를 자립하는 신규 산업단지로 향후 민간이 주도하는 산단 내 재생에너지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시설물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22MW)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20MW) 등 42MW를 설치하고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산업단지 에너지수요의 100% 이상을 확보한다. 42MW는 4인 가구 기준 약 6만 가구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전기량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화성시는 입주기업의 RE100 이행 협력과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화성도시공사와 한화솔루션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 조성 및 설치·운영·임대를 추진한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무역장벽이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RE100 기업과 협력업체가 집적해 있는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매우 높고 에너지 소비가 커, 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최적의 부지로 산단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김동연 지사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공공·기업·도민·산업 등 4가지 분야에서 RE100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을 통한 안성시 개발 촉구

17일 ‘2023년 도시주택실·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안성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주도의 개발 방향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17일 열린 ‘2023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일부 등을 포함해 8개 시·군, 경기도 전체 면적의 38%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강력한 개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목적은 한강수계 수질 및 녹지 보호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당초의 목적과 달리 공업용지 조성규모 제한으로 인해 소규모 공장 등 분분한 개별업지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난개발과 교통혼잡,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오염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정주여건이 악화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오

히려 난개발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등 현실 여건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을 건의하며 ▲자연보전권역내 공공주도형 산업단지 규모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내 도시개발사업 규모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또한 박 의원은 “GH가 자연보전권역에 알맞은 공공주도의 개발 방향을 수립하여 안성시의 체계적 개발을 촉

진해야 한다”며, “각종 규제 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성시를 GH의 균형발전 전략에 포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세용 GH 사장은 “안성시를 포함해 경기도 동북부권 개발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경제투자실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소홀 강력 질타

서현옥 도의원, 2023년 행정감사에서 재선의원의 노련함으로 경제투자실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을 꼬집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3)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나열하고 박승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을 향해 집행부의 역할을 물었으며, 대처 방안과 소관 부서로서 책임 등 공공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하여, 서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부센터 개소 관련 문제에서부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의 거점센터를 한곳에 모아 행·재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까지 재선의원으로서 노련하게 경기도 사업 면면을 들여다보며 5분 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해 왔다.

또한, 서 의원은 제안을 넘어 도의원으로서는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관련 집행부 및 관계기관, 지원 기업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경제투자실 행정감사에서 서 의원의 질의에 박승삼 실장은 “경제투자실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연구용역 및 다양한 논의를 통한 공공기관과 도의 관계 정립과 주무부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인재 양성 사업 등이 지자체 경



상 보조 사업으로 변경하여 계획한 것을 지적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전했다.

이어, 박승삼 실장은 “본예산 심의에서 다시 100% 도비 사업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사업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서 의원은 2023년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행정감사에서 경제투자실의 감사를 마치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도민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

해양치유 1번지 치유의섬 '완도'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세요

2023년 11월 24일

GRAND OPEN

수원시, 한국ITS학회 제정 'ITS 도시상' 받아

1997년부터 ITS 기반 구축, 2025년 제20회 ITS 아태총회 유치 성과 인정받아

수원시가 한국ITS학회가 대한민국 ITS 도입 30주년을 기념해 제정한 'ITS 도시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16일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ITS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중 진행됐다.

수원시는 1997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ITS(지능형교통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2025년 제20회 ITS 아태총회 개최도시로 선정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025년 지능형교통체계(ITS) 아태총회 유치 후보 도시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수원시를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했다. 수원시·경기도·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한국관광공사·경기관광공사 등과 유치준비단을 구성하고, 4월 중국 쑤저우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

중 제안발표에서 경합 끝에 '2025년 ITS 아태총회'를 수원시에 유치했다.

'한국ITS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는 18일까지 '대한민국 ITS 30년'을 주제로 열린다. 수원시는 학술대회 중 2025 수원 ITS 아태총회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ITS 30년을 기념하는 ITS 도시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수원시가 대한민국 ITS의 모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TS(지능형교통체계)는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안정성·편의성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버스정보시스템, 교통정보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ITS다.

김범상/기자



성남시, 산성대로(모란역~남한산성입구) S-BRT 1단계 실시설계 용역 착수

성남시는 17일 오후 5시 시청 상황실에서 '성남~북경 광역BRT 구축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성남시 S-BRT 1단계 산성대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 착수보고회로 올해 1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사업 개발계획 확정 이후 성남의 S-BRT 사업이 본격도에 오르게 됐다. 내년 7월까지 기본설계, 주민설명회, 실시설계 등 실제 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를 모두 수행하게 된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사업수행 컨소시엄 관계자, 교통전문가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점검했다.

기본 및 실시설계의 세부 과업 내용은 ▲버스전용 주행로 ▲교차로 우선처리 ▲수평 승하차 ▲대용량승승 및 친환경수단의 별도 노선 확보 ▲버스 및 일반차량 소통 최적화 등 산성대로(모란역~남한산성입구) 5.2km 구간의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 교통 운영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특히 내년 상반기에 2단계 구간인 성남대로(모란역~북정역) 5.0km 구간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산성대로(1단계) 공사와 동시에 추진하여, 원도심 핵심 주간선축의 교통 여건 개선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025년까지 2단계 구간 공사를 마치고 2026년 1월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시 S-BRT 사업은 수정구·중원구의 원도심 핵심 주간선축인 산성대로와 성남대로 10.2km 구간이 국·도·시 상위계획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에 '성남~북정 광역BRT'로 지정되면서 추진됐다. 사업비 419억원 중 국비 50%, 도비 25%인 314억원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국경 과제 사업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등 다수 도시재생사업이 원도심에 추진 중인 가운데 선(先)교통, 후(後)개발의 대규모 S-BRT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상대적으로 불편한 원도심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아이들이 행복한 용인 만들 것"

'제17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서 아동 권리보호 위해 공동 대응 다짐



용인특례시는 '제17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17일 기흥구 중동 용인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용인시 아동학대 공동대응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종길 용인서부경찰서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함께 했다.

식전 공연으로 지역 내 아동들의 태권도 시범이 펼쳐지자 장내엔 아이들

의 우렁찬 함성이 가득 찼다.

이상일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6명의 공동대응팀 유공자를 표창하고 격려했다.

이 시장은 "오늘 기념식은 아동학대 예방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동대응 체계를 점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라며 "열정적으로 공헌한 태권도단처럼 아이들이 밝고 명랑한 웃음을 잃지 않도록 앞으로도 아동 권리 증진에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아이가 태어나고 건강하게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행복한 용인특

례시를 만들기 위해 저와 용인시 공직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공동대응팀들이 아동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 상영에 이어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참여권', '발달권', '보호권'이란 이름이 쓰인 화분에 물을 주면 꽃이 피는 매직트리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막을 내렸다.

시는 지난 202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용인동·서부경찰서(사건 수사)와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3개의 전담병원(진단·치료), 용인교육지원청(학습권 보호),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사례관리) 등과 아동학대 공동대응팀을 꾸려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범상/기자



안양시, 내년 예산 1조8059억원 편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안양시는 오는 2024년도 예산안을 1조8059억원 규모로 편성해 1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6994억원보다 약 1065억원(6.3%) 증가한 수치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310억원(9.3%) 증가한 1조5310억원, 특별회계는 245억원(8.2%) 감소한 274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시는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와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내년도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약 209억원(4.1%) 감소하고,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가 283억원(20%)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복지 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680억원 증가했고, 철도사업 등 대규모 시설 투자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해 온 재정안정화기금 963억원을 활용해 전체 예산 규모는 6.3% 늘었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의 운영비 인상 억제 ▲업무추진 국내 여비 60% 감액 ▲시책업무추진비 10% 감액 ▲행사 및 축제성 경비 10% 감액 ▲지방보조금 부서별 한도액 배분 ▲사업 우선순위 및 투자시기 조정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강력한 지출 혁신으로 확보된 재원은 ①다달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②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③민생우선 경제중심도시 ④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도시 ⑤삶이 풍요로운 문화·녹색도시 등 5대 중점 분야에 투자한다.

분야별로는 미래도시 구성을 위해 ▲월곡~판교 복선전철 건설(592억원) ▲GTx-C노선 건설(250억원)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건설(103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18억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34억원) ▲인덕원 주변 공영개발(170억원) ▲갈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51억원)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40억원) ▲임곡·충의공원 조성 사업(81억원) 등을 편성했다.

청년특별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

업으로는 ▲청년기본소득(60억원)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15억원) ▲청년저축·내일저축 계좌지원(17억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1억6000만원) ▲청년창업 특례보증(1억원) ▲청년 이사비 지원(7500만원) 등을 반영했다.

또 경제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43억원) ▲중소기업융성자금 융자지원 이차차액보전 지원(33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24억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3억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2억8000만원) ▲안양 상권 바꾸어 지원(2억원) 등을 추진한다.

교육·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영유아보육료 지원(470억원) ▲교육기관 보조(340억원) ▲학교급식경비 지원(222억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74억원) ▲출산지원금 지원(77억원) ▲장애인 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18억원)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문화·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174억원) ▲평창도서관 건립(70억원) ▲석수체육관 건립(62억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16억원)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4억1000만원)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운영 사업(1억3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세수 부족으로 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운용 효율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민선 8기 시정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신우용/기자

고양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참여 2년 만에 에이등급 획득

국제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공인 결과 공개

고양특례시가 지난 15일 2023년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평가결과 에이(A)-등급 도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2021년 5월에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에 가입해 국제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에 참여했다.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공동 기후행동 추진계획(이니셔티브)이다. 2023년 11월 기준 전 세계 13,250여개 도시, 국내에는 서울, 대구, 수원 등 2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본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GHG) 목록(인벤토리) 등록 △기후위험 및 취약성 평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값 설정 △

기후변화 적응 목표 설정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접근확대를 위한 목표 설정 △이행사항 모니터링 및 보고 등이다.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에서 이행사항 모니터링 및 보고에 활용중인 국제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는 전 세계 주요 기업과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및 수자원 관리 노력 등을 평가해 투자자와 금융기관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글로벌 비영리기구의 프로젝트이자, 영국에 본사를 둔 비영리기관이다. 전 세계 92개국에서 참여 중이며, 높은 공신력을 가진 글로벌 지속가능성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국제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는 참여기업과 도시를 기준으로 따라 D등급 환경 관련 정보 단순 공개(Disclosure), C등급 사업의 환경영향 인지(Awareness), B등급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리(Management), A등급 타의 모범

수준 경영(Leadership)으로 나뉘는 8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에 비(B)등급을 획득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에이(A)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에너지 접근성과 에너지 빈곤 등 에너지 정의(Energy Justice)에 관한 평가항목이 추가되어 기존보다 평가가 복잡해지고 어려웠으나, 고양시는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적응계획을 일찍부터 적용하고 이행점검한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를 마칠 수 있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가 그간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인구 백만의 대도시인 만큼 기후위기에 책임감을 통감하고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고 전했다.

고양시는 지난 2019년에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토지, 대응기반

등 6개 부문, 17개 전략, 53개 실천과제, 92개 세부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 225만8천 톤을 감축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수립한 계획은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매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50,730.8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2022년 감축목표 대비 92%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후행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에 힘쓰는 방침이다.

한영기/기자



화성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기업탐방 프로그램 진행

16일 화성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진로 탐색을 위한 기업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정남면 소재 기업(주)태성을 방문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9월 화성시와 화성시기업인연합회가 맺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된 첫 번째 기업탐방 프로그램이다.

(주)태성은 냉동공조 산업 우수 기업체로,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회사·업무 안내 및 간

단한 취업교육 등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다양한 공정 시설 현장을 둘러보며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상세히 소개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20명의 이주배경청소년은 네팔,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국적의 13세 이상 청소년들로, 매체나 상담으로만 접하던 진로 분야의 기업을 직접 탐방하고 실제 현장과 근무 환경을 둘러보며 많은 관심과 호기심으로 견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와 화성시기업인연합회는 협약에 따라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및 자립지원 등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영우 (주)태성 대표는 "시와 협업을 통해 마련한 이번 기업탐방 프로그램이 화성시 이주배경청소년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노영 여성다문화과장은 "화성시는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있도록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영양군, 반변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태풍이 몰아치고 엄청난 집중 폭우가 쏟아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홍수 등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물길을 잘 열어야 하는 것은 최우선적 선결과제이다.

이처럼,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방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 '영양군 반변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을 취임후 제일먼저 추진했다. 그는 "군의 반변천을 정리해야 집중호우가 몰아쳐도 거뜬히 이겨 낼수 있어 물길이 원활한 흐름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어 우기철 침수 피해 걱정하는 군민들의 안전과 근심을 담보할 수 있다"며 야심차게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취재진은 반변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대해 집중해서 들여다 봤다. 이 사업은 영양군 일원면 칠성리에서 영양군 입안면 신구리 일원의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다. 반변천의 사업량은 제방 길이 9.646km, 교량 5개소, 취수보 2개소를 설치 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482억 7천 2백만원 (도급 216억 1천1백만원, 관급 129억원, 폐기물 10억 3천4백만원, 보상 등 127억 2천7백만원), 공사기간은 지난 2018년 8월 29일부터 2024년 6월 30일(5년 10개월)이며, 사업추진 관리단은 극동엔지니어링(주), (주)삼금 엔지니어링, 시공사는 대일종합건설(주), 신동아 종합건설(주), 동아건설(주)이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공사 진척율은 90%이상으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완료될 전망이다.

참고로, 영양군은 이 사업추진 덕택으로, 지난 2023년 시간당 40mm의 기록적 폭우에도, 타지역 피해 속출과는 달리 영양군은 소수 논밭 침수외에 건재를 과시 했다. 이에 본지는 막바지를 향 하고 있는 영양군반변천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그간 진척사항을 기획 기사를 통해 영양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자 준비했다.

▲오리고 교량 설치



<오리고> 하천기본계획상의 계획하폭 부족, 하천설계기준에 의한 기존교량의 최소경간장 및 여유고 부족으로 기존교량 철거하고 신설 교량을 설치했다. 종전 오리고는 교량의 높이가 낮아 집중 폭우

시 뿔한 수목들이 떠나려 오면서 낮은 교량에 걸쳐 각종 이물질과 어울려 교량을 막다보니 교량위로 물이 넘쳐 흘러 인접 논.밭.가옥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하여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교량 높이를 기존보다 1.5m 높게 새롭게 설치함으로써 이와같은 하천 범람을 차단시켰다.

▲음지교 교량 설치



<음지교> 이 교량은 하천 건너 가구수가 몇가구 되지 않아 그동안 토사로로 운용해 왔으나 비가 오면 다 떠나려 가곤 해, 또 새롭게 설치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교량을 설치해줌으로써 강 건너 소수 가구 거주민들의 불편을 일거에 해소해 주는 기대효과를 거뒀다.

▲장천지구 곡강교



<장천지구 곡강교> 곡강교는 국도31호선을 연결하는 반변천 횡단교량으로 우안 측은 국도와 접속하고 좌안측은 민가와 인접하여 홍수시 통행 및 안전에 취약한 기존 교량을 철거 하고 신설 교량을 설치하였다.

▲원주평교 교량 설치



<원주평교>

진막골길(비법정도로) 원주평교는 강우시 통행 단절과 무리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어 계획 홍수위를 고려한 신설교량 설치/기존 진막골로/영양로 접속에 따른 시중점부 접속도로 설치해줌으로써 강 건너 소수 가구 거주민들의 불편을 일거에 해소해 주는 기대효과를 거뒀다.

▲지평지구 감천교 교량 설치



<지평지구 감천교> 기존교량은 준공 후 30년 경과된 노후화된 교량이며 하천 좌안측은 농경지가 위치하고 우안측은 마을과 인접한 지구로 하천기본계획상의 계획하폭 부족, 하천설계기준에 의한 기존교량의 최소경간장 및 여유고 부족으로 기존교량 철거하고 교량을 신설하였다.

▲감천지구 축제 및 호안



<감천지구 축제 및 호안> 영양을 감천리의 천연기념물 제114호 축백나무 숲 대안측 구간인 감천지구 경우에는 수리특성 및 주변지역과의 경관성을 고려하여 식생호안블럭을 적용한 복단면 제방을 설치하였다.

▲구감지구 축제 및 호안



<구감지구 축제 및 호안 >

상류부 시점부는 31번국도와 연결된 감천1교가 있고 축제/호안은 상류에서 하류로 약 1km 구간이 계비온매트리로 설치, 제내지측의 과수원등 농경지 보호에 효과적으로 이용된다.

▲신구지구 가동보



<신구지구 가동보>

가동보는 낙동강 최상류 유역으로 홍수시 돌, 나무 등 유송잡물이 많다는 점을 고려, 우선적으로 보 본체 충격의 완충 역할이 가능한 형식인 고무보 형식을 도입했고 또, 계획지점 상류에 위치한 선바위관광지를 고려, 경관측면에서 타 형식에 비해 주변 자연환경과의 괴리감이 적고 여타 형식에 비해 경제성 있는 고무보 형식을 계획 설치했다.

이제 내년 상반기가 되면, 영양군 반변천 재해예방사업이 완료된다. 이리되면 이곳 영양군은 여하한 폭우·태풍이 불어 닥쳐도 재해 걱정없는 지역이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해 보인다. 이를보면서 영양군 반변천 재해예방사업을 시의 적절하게 추진한 영양군수이하 5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언론인을 떠나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써 깊이 감사 드리며, 이번 반변천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시



공해 주고 있는 대일종합건설(주)이하 건설사들에게도 무한 감사를 보낸다. 한편, 반변천 주시공사 '대일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경북 소재 업체로 2007년 설립, 정부 건설정책에 적극 동조, 건설공사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특히, 반변천(영양지구)하천재해예방 사업 공사 추진 시 ▲해당지역 장비 이

용, ▲현지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수급 가능한 자재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어려운 여건에도 무재해 및 최고 품질확보를 목표로 지역민과 융화, 만족감을 주는 공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건설한 업체로 알려져 있다.

윤근수/기자

영양 들머리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에 빠지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머리보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도,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참벽공원, 축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랑국제립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랑생태공원, 영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관, 영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랑산천생태박물관, 본재수석야생화전시관



경북도,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10일 도청 동락관서 도지사, 도의장, 농업인 단체장 등 700여 명 참석 이철우 지사, “농업의 첨단화, 규모화, 기술혁신 등 농업 대전환으로 세계에 명성 떨치는 경북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농정분야 전반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



도가 한 해 동안 고생한 농업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0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로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착안하여 농촌계몽운동가인 원흥기 선생이 1964년 처음 제안했고, 1996년 정부

기념일로 최초 지정되었다.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수확기에 먹거리 생산에 힘쓴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11월 11일이 공휴일로 하루 앞서 개최된 이날 기념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한철 도의회 의장, 도의원 및 도내 농업인 단체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해 농업인의 날을 축하했다.

특히, 금년도에는 미래 대한민국과 경북 농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도내 3개 농업계 고등학교(한국생명과학고 <안동, 50명>, 한국미래농업고<상주, 20명>, 경북자연고등학교<상주, 40명>) 학생 110명이 참석해 농업인의 날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 전문기술 개발 보급 및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농업명장 2, 농업인대상 11) 및 시군(7개 시군)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경북 농업명장에는 신길호(포도, 영천), 최동식(공, 경주) 씨가 선정됐으며, 10개 부문별 우수농업인에게 주어지는 농업인대상 전체 대상에는 정동규(포도, 영천) 씨가 선정되었다.

10개 부문별 수상자는 식량생산부문 이명창(울진), 친환경농업부문 최준하(상주), 과수·화훼부문 이문재(문경), 채소·특작부문 박정희(청송), 농산물수출부문 최영식(김천), 축산부문 한용규(경산), 청년농업인부문 임영호(안동), 여성농업인부문 안경동(상주), 여성농업인부문 김은주(청송) 씨가 각각 선정됐다.

경상북도 농업명장 신길호(55세) 씨는 농식품부 지정, ‘농업마이스터’로서 다년간 축적된 포도(샤인머스켓) 재배 기술을 후배 농업인들에게 전수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경주 최동식(67세) 씨는 식량작물 분야 선도 농가로서 하계 콩, 동계 조사료 등 이모작 작부 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쌀 적정 생산/조사료 생산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의 경북 농업인대상 전체 대상에 선정된 영천시 정동규(60세) 씨는 34년의 영농경력을 바탕으로 축적된 포도 재배 기술을 활용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금호포도 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원 교육 및 현장 지도를 통해 품질 고급화에 힘쓰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에 선정됐다.

또한 2023년 시군 농정평가에서는 의성군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에는 상주시(시부), 예천군(군부), 우수상에는 영주·영천시(시부), 청송·청도군(군부)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고 부상과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상북도는 대표 농도이자, 식량창고로서 지방시대의 포문을 여는 대전환도 농업에서부터 시작했으며, 농업은 국가를 바꿀만한 핵심 사업”이라 전하며,

“농업의 첨단화, 규모화, 기술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명성을 떨치는 경북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농정분야 전반을 더욱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청송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청송미래농업 혁신포럼 성료”

윤경희 청송군수, “이번 청송농업혁신포럼으로 청송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

청송군은 지난 17일, 청송문화예술회 관 대공연장에서 청송군농업인단체협의회 주최로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로, 이날 행사에는 윤경희 청송군수와 권태준 청송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각급 기관 단체장 및 농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1부 행사에서는 송암 김인환상을 비롯한 도지사, 국회의원, 군수 표창 등 9개 부문 15명의 농업발전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2부 행사로 “청송미래농업 혁신포럼”이 이어졌다.

‘청송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

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윤경희 군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민승규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윤태영 경북대학교 사과연구소장, 청송농협 김중두 조합장의 주제발표 후 김병원 (사)한국생명과학기술훈원회장이 좌장을 맡아 청송농업전반에 대한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올해 이상저온과 우박 등 자연재해와 농자재 가격 상승 및 세계경제 불안정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주신 농업인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청송농업혁신포럼을 통해 청송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군수/기자



부산시, 한국의 미(美)를 담은 현지 옥외 광고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하다!

11.28.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앞두고, 결정 투표가 진행되는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적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한복 기반의 화려하고 직관적인 옥외광고 진행 파리 택시 외부랩핑(100대), 드골공항 내 디지털 타워(4기), 파리 대형쇼핑몰 월스크린(2기) 등,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분위기 고조/공감대 형성 기대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되는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앞두고, 프랑스 파리 현지 곳곳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부채 바람이 분다.

부산시는 국제박람회기구(BIE) 본부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적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한복 기반의 화려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의 옥외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8일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자인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한국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옥외광고로 투표권이 있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표심을 흔들기 위해서다.

현재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옥외광고는 ▲파리 택시 외부랩핑(100대)드골공항 내 디지털 타워(4기) ▲파리 대형쇼핑몰 월 스크린(2기) 등이 있으며, 파리 택시 100대의 외부에는 색동한복을 입은 어린이가 태

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랩핑돼 파리 시내 곳곳을 누비며 유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드골공항 수화물 도착장과 파리 대형쇼핑몰 시타디움 외벽 등에 있는 디지털 타워와 월 스크린에는 한복을 착용한 외국인 이 ‘엑스포 2030 부산(EXPO 2030 BUSAN)’이 적힌 부채를 들고 있는 4종류의 시안이 송출되고 있어 파리관광객, 현지인 등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유치 공감대를 조성하고 있다.

조유장 부산시 2030엑스포추진본부장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한국적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한 이번 옥외광고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미래 세대를 위한 삶의 방향 제시’ 「여중군자 장계향과 갈암 이현일의 군자리더십」 워크숍 개최

장계향연구회는 지난 17일(금), 장계향문화체육교육원 강당에서 장계향연구회 회원, 장계향선양회원, 음식디미방보존회원,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중군자장계향과 갈암 이현일의 군자리더십」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첫째 날에 위덕대학교 박희택 교수의 ‘여중군자 장계향의 군자리더십’, 한국고전번역원 김연중 원장의 ‘갈암 이현일의 군자리더십’, 장계향연구회 이상국 연구위원장의 ‘대학생(大學生)으로 교수의 삶을 산 군자 장계향’ 등 강의 및 두들마를 투어로 구성됐고, 둘째 날에는 우리 시대에 군자로 사는 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는 그룹토론, 영산서원·서석지를 탐방하는 군자문화체험 등을 진행했다.

워크숍은 전문가들의 풍부한 강의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진정한 군자로 성장

하기 위한 길을 제시하며,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지향점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로 마련되었다.

워크숍을 주관한 장계향연구회 이병달 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사업에 대한 다양한 방향을 고안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군수/기자

군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개최

김진열 공공위원장,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기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히

군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6~17일, 달성군 일원에서 1박 2일 동안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위원과 담당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행복재단 정상기 선임연구원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발적 참여의 필요성과 역할’, 달성군 월성2동 최안진 민간위원장의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우수 활동 사례’ 등 타 지역 사례 공유·특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영상 시청 등으로 진행되

었다.

박현민 민간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과관이 서로 협력해 민간 자원과 지역의제 발굴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진열 공공위원장은 “지역복지 현장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협의체 위원과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기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심리치유기관인 대구스마일센터 정책현장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7일(금) 13:30~14:30, 노정영 대구고검장, 오순택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스마일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한동훈 장관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등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범죄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임상심리 전문가들과 센터 관계자들

을 격려하는 한편, 피해자지원 개선 필요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치유기관으로서, 정신보건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 전문가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심리치유, 유관기관 연계,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0년 서울동부 스마일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16개의 스마일센터와 출몰지원단이 운영 중에 있다.

대구 스마일센터는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원로 여성 성폭행 살인 미수 사건 피해자들에게 심리상담, 집단치료

등을 지원했다.

또한, 간담회에서 한동훈 장관은 “작년 6월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피해자 합동분향소 방문 후 범죄피해자 관련한 두 번째 대구 방문이다. 1년 5개월이 지나 잊으신 국민들도 있겠지만, 피해자 가족은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고통 속에 살고 있을 것이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임무이다. 지난 15일, 다양한 지원을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업무협약을 서울시와 체결했, 서울 원스톱 센터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조만간 대구 지역에서도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군수/기자



경북도, 제84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애국정신 기려

경북도는 지난 17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왕산관(대강당)에서 『제84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순국선열(殉國先烈)의 날은 193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총회에서 매년 11월 17일로 제정됐다.

이날은 숭고한 독립 정신과 희생 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이들의 열과 위훈을 기리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이날,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대독)를 통해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경상북도가 존재하는 것은 가장 어려웠던 순간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강조하며,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에게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경북도에서는 이런 선열들의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되살리고 선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으로 진행되어 순국선열들의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기념사(대독)를 통해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경상북도가 존재하는 것은 가장 어려웠던 순간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강조하며,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에게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경북도에서는 이런 선열들의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되살리고 선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금정구 부곡4동, 마을 주민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희망을 심는 숲속의 아이들' 팜파티 개최

부산 금정구 부곡4동은 2023년 ON-마을 희망교육 공모 사업 '희망을 심는 숲속의 아이들' 팜파티를 개최했다.

'희망을 심는 숲속의 아이들' 사업은 마을 주민과 아이들이 함께 텃밭을 가꾸는 체험활동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어른 공경 등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지원하고자 지난 5월부터 총 13차시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마을 주민과 아이들이 함께 키워 온 텃밭 작물 수확 및 전시, 작물을 활용한 샌드위치 만들기, 사진전, 소감 나누기 등으로 다채롭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아이들이 6개월간 직접 키운 작물을 거두는 활동을 통해 수확의 기쁨, 자연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은 “모종 심기부터 작물 수확까지 직접 해보니 농부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 농사를 짓는지 알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마을 주민들 또한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조성하는 시간은 우리에게도 색다른 즐거움이 되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배운 것들이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과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영주시,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내년 3월 15일까지

박남서 영주시장, “대설·한파 대비 현장중심 대응체계 구축하며, 시민들께서도 한파 행동요령을 숙지해 안전한 겨울나기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혀



경북 영주시가 겨울철 대설·한파 등 각종 재난,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13개 협업부서와 관계기관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부를 구성해 각종 재난 상황에 대응한다. 대설·한파 등의 기상 특보 시에는 단계별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앞서 지난 14일까지 재해취약대상 조사를 완료하고 대설·한파 대책반을 구성해 제설 관련 재난관리자원 확보와 적설 취약구조물·도로 등 현장점검·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염화칼슘, 모래 등 제설 자재를 결빙이 예상되는 취약 지역에 사전 비치하고, 제설 자재 비축(염화칼슘 280톤, 소금 100톤, 모래 3000m³, 빙방사포대 8만 장), 제설 장비 확보(모래 살포기 6대, 제설 삽날 9대, 염수 살포기 1대)를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 대비 제설 차량(15톤 덤프)을 1대 추가(총 7대)했고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2개소(부석면, 가흥신도시)에 추가 설치(총 13개소)해 통행 안전 도모 및 신속한 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태세를 완비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방한물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재난 도우미(지역자율방재단)를 통해 한파특보 발효 시 어르신 안부 방문 및 전화 통화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시는 선제적인 자연 재난 대책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한파 행동요령을 숙지해 안전한 겨울나기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안동에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개소

권기창 안동시장, “비임상을 책임질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제약·바이오 벤처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경상북도, 안동시, 포항시 지역혁신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안동의 백신·바이오산업이 한층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안동시가 백신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며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지난 17일, 비임상 단계의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백신상용화 기술지원센터(산업단지1길 48-13)를 개소했다.

이 센터는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에 선정, 경북바이오 일반산업단지 내 연면적 4,625.8㎡의 부지에 ▲BL2/3급 바이러리스 및 세포배양실, 배양공정개발실, 정제실, 동결건조실 ▲ABL2/3급 사육실, 부검실, 분석실 ▲기업입주 공간 등이 조성됐다.

센터 기능은 ▲비임상 단계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수율 개선 ▲백신효능, 안전성을 확인하는 효능평가 ▲기업체 기술이전을 주도할 링크 협력기술 지원 등으로, 현재 글로벌 협력을 위해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소식에서 3개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안동시, 포항시)와 4개 지역혁신기관(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바이오미래기술혁신연구원, 글로벌엑소좀연구소)이 경상북도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안동시, 포항시)는 ▲지역 특화산업(백신·신약) 육성 및 상호 협력방안 모색 ▲정부 대형 국책사업 협력 모델 발굴 및 정책 수립 공동 대응 ▲제약·바이오 분야 공동 추진 전략 수립 및 행정지원 ▲제약·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혁신기관 협력체계 지원 및 연계 등을 추진해나간다.

또한, 지역혁신기관(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바이오미래기술혁신연구원, 글로벌 엑소좀 연구소)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 ▲제약·바이오산업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제약·바이오산업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및 지원 ▲기관별 보유 기술의 이용 촉진을 위한 기술자문 및 정보공유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안동시는 10년 전부터 백신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는 R&D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비임상을 단계별 지원하는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임상 단계를 지원하는 동물세포질주입센터, 위탁생산 대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유하고 있어 백신개발에서 생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추진 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있다. 최근, 질병청 산하의 (재)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와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유치로 백신산업클러스터 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편, 안동시는 '(재)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건립은 2023 ~ 2027까지 440억원(국 214, 지 226)을 투입해 시 기반 항원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며,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3,579억원(국비)을 투입, 안동시 풍산을 일원해 부지 132만㎡에 건립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시가 구축하는 연구개발에서 비임상, 임상, 상용화에 이르는 백신 전주기 지원 시스템 중에 비임상을 책임질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제약·바이오 벤처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경상북도, 안동시, 포항시 및 지역혁신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안동의 백신·바이오산업이 한층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남해군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개최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누리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남해군은 지난 15일, 남해평생학습관 다목적홀에서 '2023년 남해군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남해군은 지난 3월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로부터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총 6,000만원(국비 3,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남해군 장애인연합회 장흥이 회장을 비롯,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남해군지회, 남해군수어통역센터, 남해시각장애인협회, 남해군 지적장애인협회 등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 협력을 다지고자 한다.”며 “평생학습을 통한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을 열어가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소천면체육회, 2023년 소천면민 화합한마당 성료



소천면체육회는 지난 16일, 분천협곡구비마을에서 주민의 건강과 화합을 기원하는 '2023년 소천면민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천국 봉화군수, 박형수 국회의원, 김상희 봉화군의회의장 김민호, 황문익 의원,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각급 기관단체장 등 내빈을 비롯한 면민 500여 명이 참석해 화합과 단결의 장을 만들었다.

이날 행사는 면민 걷기대회와 마을별 노래자랑, 가수 초청공연으로 진행됐으며, TV, 냉장고, 세탁기 등 풍성한 경품추첨 행사도 열려 면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노래자랑 진행 중 비가 내리며 날씨가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면민이 함께 어울려 즐기며 행사에 열기를 더했다.

구분수 체육회장은 “곳은 날씨에도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행사가 이웃 간, 마을 간 화합과 유대를 굳건히 다지고 소천면의 발전과 번영을 결속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일현 소천면장은 “오늘 행사를 정성들여 준비해주신 소천면체육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소통하고 화합해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제11회 NEAR 청소년 그림 공모전 수상작 발표

NEAR 청소년 그림 공모전 최우수상... 몽골 우브르항가이 아이막 바트르트흐 그림 공모전을 통해 동북아 문화를 이해 및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은 지난 15일, '제11회 NEAR 청소년 그림 공모전'의 수상작으로 총 31점의 작품을 선정해 발표했다.

NEAR 청소년 그림 공모전은 동북아 5개국(한·중·일·몽·러) 청소년들이 각 지역 문화 및 주변 국가에 대한 이해 제고 차원에서 2013년부터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그림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축제로 보는 동북아시아'란 주제로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동북아시아 5개국 34개 광역 지방정부 청소년들이 827점을 출품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NEAR 사무국은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와 함께 엄정한 외부평가를 통해 총 31점의 수상작과 169점의 입선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몽골 우브루항가이 아이막 바트르트흐의 '카메라로 포착한 몽골 축제'가 공모의 주제에 맞게 상징성이 뛰어나고 화면 구성에 창의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로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중국 후난성 천치슈안의 '중국 설날 축제 분위기', 러시아 톰스크주 알리모바 아나스타시야의 '이반 쿠파라의 축제에 화환 올리기' 등 10개 작품이 선정됐고, 장려상에는 일본 효고현 모리카와 마나카의 '멋진축제'가 선정되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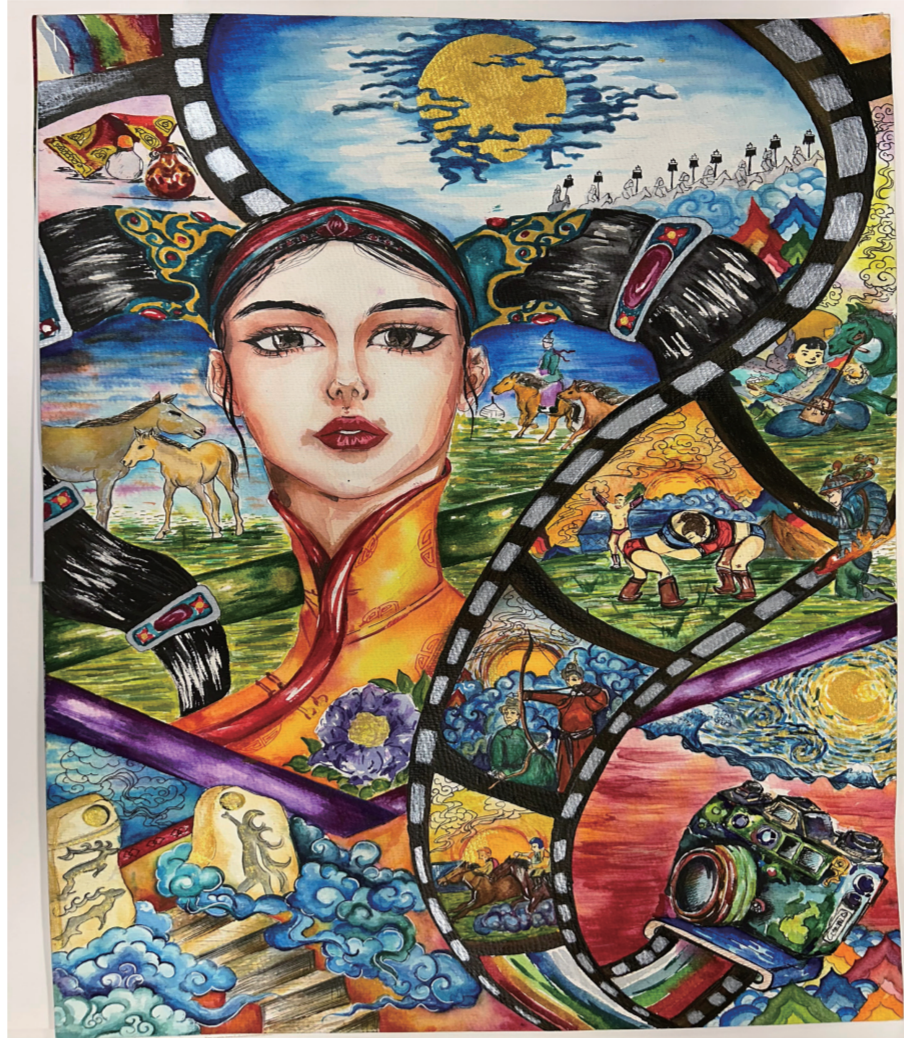
20개 작품이 선정돼, 총 31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이밖에도 경북 영주고등학교 현동민의 '대한민국 풍등축제' 등 169점이 입선으로 선정됐다.

전체 수상작은 NEAR 웹사이트(www.neargov.org/kr/)를 통해서 확인할 있으며, 내년부터 각 시도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그림 공모전은 동북아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81개 광역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광역 지방정부 간 경제·관광·환경·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플랫폼으로서 1996년에 출범하였고 상설 사무국은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다. 한국은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가입한 상황이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81개 광역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광역 지방정부 간 경제·관광·환경·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플랫폼으로서 1996년에 출범하였고 상설 사무국은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다. 한국은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가입한 상황이다.

윤근수/기자



2023학년도 청소년 환경지킴이 프로그램 실시

2050 탄소중립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청송군 진보면 진성중학교는 지난 16일(목,)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서 실시한 2023학년도 청소년 환경지킴이 프로그램(숲으로 숲으로 숲으로)에 참여하였다.

탄소중립 시범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오전에 A, B, C조로 나누어 숲을 탐방해 보고 서로가 느낀 점을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폐현수막과 폐종이박스를 이용한 업사이클링 환경 피켓 제작 활동을 하였다.

특히 이번 업사이클링 환경 피켓 제작하기 활동에서 폐종이박스 3면을 활용하여 마치 종이 애니메이션 효과처럼 움직이는 피켓을 제작한 본교 3학년 김시현 학생은 "평소 2050 탄소중립,

1.5°C, 기후 위기 등의 용어를 자주 접했는데 이번 환경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탄소중립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본교는 탄소중립의 생활 속 실천 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채로운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윤근수/기자



산림조합산불진화대, 양수발전소 유치 릴레이 캠페인 실시

오도창 영양군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 양수발전소가 꼭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히

영양군은 지난 17일(금) 오전 8시, 영양등기소 사거리에서 영양군 산림진화대와 산림조합 직원 40여 명이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영양군 산림조합은 1962년 설립되어 산림경영계획작성, 숲가꾸기사업, 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주 지도 등 산림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산주들을 대변하여 영양군 산림을 관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양군 산림진화대는 산불예방 홍보와 함께 산불 발생 시 최일선에서 산불진화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양수발전소는 사업비 2조 원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유치하게 되면 인구의 유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세수 증대 등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영양군민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유치를 염원하고 있다.

이에 영양군 산림조합과 산림진화대원들도 양수발전소 영양 유치 캠페인에 적극 나섰다.

김성웅 영양군산림조합장은 "영양군 산림조합에서도 양수발전소가 영양에 유치되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라고 전했고 김한중 산림진화대장은 "우리 진화대원들도 양수발전소 영양 유치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양수발전소가 영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관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혜화여고 봉사동아리, 재배한 고구마 경로당에 전달



부산 동래구 안락2동은 지난 15일, 혜화여자고등학교 스포츠 나눔 봉사동아리(S.V.G.)로부터 고구마 21박스(100kg 상당)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고구마는 학교 텃밭에서 학생들이 손수 키우고 수확한 것으로 스포츠 나눔 봉사동아리(S.V.G.)는 해마다 직접 재배한 고구마, 손수 담근 김치 등을 저소득 세대에 기부하는 등 꾸준한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학생들은 "고구마를 정성들여 키우고 수확하여 보람을 느끼며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릴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민구 안락2동장은 "학생들이 직접 키운 고구마를 이웃에게 베푸는 마음이 너무 기뻐하며,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을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경산시, 겨울철 도로 제설 종합대책 수립,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경북 경산시는 지난 18일, 지난 15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도로 제설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도로 제설 종합대책을 수립, 겨울철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로 제설 등 교통 불편 최소화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동절기 제설대책을 구축했다.

이에따라 경산시는 ▲도로 정비 창고와 임시 제설 전진기지 2개소 구축, ▲임차 장비를 포함 덤프 8대, 1톤 트럭 20대, 굴삭기 3대 및 염화칼슘 104톤, 친환경 제설제 640톤, 액상 115톤, 모래주머니 등 제설제를 분산 배치했다

또한, 올해와촌 능성재, 하양 금락지하차도 등 상습결빙구간에 자동 염수분사장치 3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자동 염수분사장치 11개소를 구축하고 CCTV를 통한 상시모니터링으로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제설 차량에 GPS(위성항법장치)를 장착해 제설작업 효율을 강화했다.

앞서 경산시는 지난 15~16일 이틀간, 제설 장비(모래 살포기 28대, 제설기 18대)를 점검·수리 완료했으며, 15개 읍·면·동에 제설 장비와 제설제를 배부하고 강설에 따른 제설취약지역(결빙 구간 등) 사전살포 및 제설 장비 작동 숙련도 향상을 위한 장비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경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등 자발적 시민참여 동참을 당부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겨울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한 제설 대비와 신속한 제설 작업을 통해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우리 지역 안전 지킴이" 영양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오도창 영양군수, "바쁜 생업에도 화재예방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애쓰시는 영양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정신에 감사,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 영양군민과 지역사회 안전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밝히



영양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지난 17일, 영양군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영양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주관하고, 영양군과 안동소방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

는 소방공무원, 영양의용소방대원 그리고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 등 약 250여 명이 참여하였다.

오도창 영양군수, 김석현 영양군의회의장, 심학수 안동소방서장, 각 시·군 의

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각 기관 내·외빈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의용소방대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방기술 및 체력증진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으며 생활안전구조 이어달리기를 시작으로 소방기술경연대회 경기를 진행했다.

개회식에서는 엄주기 영양군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오도창 영양군수는 그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힘써온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며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뒤이어 각 읍·면 8개 대가 참석한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는 생활안전구조 이어달리기, 수관롤링 등 4종목으로 경기를 펼쳤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축사에서 "바쁜 생업에도 화재예방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영양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정신에 감사드리며, 오늘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영양군민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3년 경상북도 자원봉사대회』 개최

자원봉사 성과 격려 및 우수 자원봉사자, 단체 시·군 포상

경북도는 17일 청도군 국민체육센터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도내 자원봉사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상북도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재해가 잦은 요즘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한 자원봉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올 7월, 경북 북부권을 강타한 극한호우는 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줬지만, 폭염에도 계속되는 자원봉사자들의 열성적인 참여로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었다. 또 곳곳에 지역 축제가 재개되는 가운데 축제 도우미, 안전요원 등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역할도 계속 증대되고 있다.

경상북도 자원봉사대회는 자원봉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올 한해 자원봉사 성과를 축하하는 경북 도내 자원봉사자들의 행사다.

이날, 『2023년 경상북도 자원봉사대상』 수상자도 발표했다. 도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6명(대상 1, 금상 1, 은상 2, 동상 2)과 개인유공자 34명, 12개 유공단체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어 21돌을 맞은 『경상북도 자원봉사대상』은 도내 곳곳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자원봉사 문화 활성화에 앞장서는 자원봉사자를 선정·격려하고 있다.

대상 수상자 김삼재(54세, 남, 영주시) 씨는 환경정화·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내(야간) 취약지구 자율 방범 활동,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전개, 주거환경 개선 등 16년 이상 꾸준히 봉사를 실천했고 자원봉사 실적시간도 9,000시간을 초과해 탁월한 업적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상 수상자 문영희(62세, 여, 구미시) 자원봉사자는 호스피스 자원봉사, 노인·장애인 복지기관 봉사활동, 구미시 송정동 주민자치 봉사활동 등 여러 분야에 지속 참여해 왔다. 이외에 은상은 이춘희(49세, 여, 경산시)씨와 임주원(62세, 여, 상주시), 동상은 전영화(62세, 여, 울진군)씨와 성재순(70세, 여, 영천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선정됐다. 시군 자원봉사활동 평가를 통한 우수 시군에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면서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과 높은 봉사활동 참여율로 평가받은 경주시와 영덕군이 '대상'을 차지했다. 포항시와 청도군이 '최우수상', 영주시, 문경시, 성주군, 울진군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기후

이변으로 인한 재난,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신속한 수습을 위해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격려하는 자원봉사대회 개최와 수상자들에게 축하드린다"라며, "도내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에 경북도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2023 BeFM 드림콘서트 개최

24일 14시, 벅스코 제2전시장, 세계적 트렌드 리더 특별 초청 강연, 부산 중·고등학생과 수험생, 시민에게 도전과 영감의 메시지 전달 예정 김지윤 박사(방송인), 하정우 센터장(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 강연 부산영어방송 누리집(www.befm.or.kr) 통해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가신청 부산영어방송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어

세계적(글로벌) 트렌드 리더가 도전과 영감의 메시지를 전하는 강연이 열린다.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오는 24일 오후 2시, 벅스코 제2전시장에서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2023 BeFM 드림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영어방송본부가 주최하고 BNK 부산은행이 후원, 부산 중·고등학생과 수험생, 시민들에게 21세기를 선도하는 세계 트렌드리더의 지식과 공감을 나누고, 부산 청소년에게 세계를 꿈꾸도록 격려하는 특별 초청 강연이다.

행사는 ▲네이버클라우드 인공지능(AI) 이노베이션센터 하정우 센터장이 '인공지능 글로벌 트렌드와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접근해 보는 시간을 가진 후 ▲국제정치 전문가이자 방송인 김지

윤 박사가 '세계의 트렌드를 읽는 안목을 키워라'를 주제로 세계를 향한 비전을 제안하고 참가자들과 인사이트를 나누게 된다.

강연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고 참가신청은 부산영어방송 누리집(www.befm.or.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또, 부산영어방송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고,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나윤빈 부산시 대변인은 "이번 행사가 수능을 지나 앞으로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게 될 부산의 청소년들에게 도전 정신과 영감을 불어넣길 바란다"라며, "중·고등학생들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2023 BeFM 드림콘서트

11.24 FRI. 14:00
부산 벅스코 제2전시장 3층 회의실

주최 / 주관 : BNK 부산은행

www.befm.or.kr

LIVE : http://www.youtube.com/@befm

인공지능의 글로벌 트렌드와 미래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Innovation 센터장
홍콩과학기술대학원 겸임교수
대통령직속 디지털융합정책위원회 AI-Data 본부장

세계의 트렌드를 읽는 안목을 키워라!
김지윤 정치학 박사 / 방송인
[세계는 지금] 1100부 부록 1인칭 동시대 최초, 오해와 진 대담을 통해

『예천군여성단체협의회, '이웃사랑 김장 나눔' 행사』

'사랑으로 담고 희망으로 버무린 김치'로 취약계층에 따스고 훈훈한 정 나눠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정 등 110가구에 전달

예천군여성단체협의회는 김장철을 맞아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취약계층의 따스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이웃사랑 김장나눔' 행사를 펼쳤다.

보문면 복지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여성단체 회원 등 40여 명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재료 준비에서부터 김장 담그기를 함께 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만든 300여 포기 김장은 높은 물가와 추운 날씨로 힘든 겨울을 맞이할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 11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권춘선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회원들의 마음으로 준비한 '이웃사랑 김장나눔'을 통해 이웃과 온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주민행복과장은 "추워진 날씨에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이웃을 위해 김장 봉사를 해주고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주시는 여성단체협의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의성군, 중국 셴양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방문

김주수 의성군수, "20년간 양 지역 간 협력을 증진했다. 앞으로도 양 도시 간 활발하고 긴밀한 교류가 이뤄져 미래세대에 더욱 중성한 교류로 발전하길 바래"



의성군 대표단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국 셴양시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13일, 중국 셴양시 당 위원회 샤사오중 서기와 왕원잔 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을 비롯한 셴양시 관계자들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현판 전달 및 간담회를 가졌으며, 14일, 셴양호수 공원에서 기념식수 및 제막 행사를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의성군과 셴양시 상호 공무원 파견 및 교사·학생 교류단 연수 재개 등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된 교류를 통해 상호발전과 친선을 쌓을 것을 약속하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난 20년간 놀라운 여정은 양 지역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했고, 문화와 경제의 교차로를 열어왔다."라며 "앞으로도 의성군과 셴양시 양 도시 간의 활발하고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져 미래세대에 더욱더 풍성한 교류로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표단의 중국 셴양시 방문은 2003년 10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꾸준히 추진해왔던 국제교류를 더욱 돈독히 하고, 양 도시의 우호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견고히 해 나가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대면교류가 어려워진 와중에도 방역 물자를 지원하고, 국제자매결연도시 화화예술작품전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금자/기자



2023년 통영시 대국민 참여형 현장포럼 개최

광도면 무량마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통영시는 지난 15~16일 양일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국민 참여형 현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포럼에는 무량마을 지역주민, 공주대 교수 및 학생 21명 및 분야별 전문가, 통영시,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지역개발사업 사례교육, 마을 자원 찾기 및 활용방안 도출, 조별 토론회, 분임조별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분임조별 심층 토론회를 통해 기초생활기반 확충, 공동체 활성화, 마을만들기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을의 발전계획을 수립해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공주대 학생들은 마을의 장단점을 명확히 주민들에게 전달해 마을 주민들이 고령관람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시는 이번 현장포럼을 통해 광도면 무량마을의 지역발전 방향이 제시됨에 따라 예비계획 수립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마을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마을공동체 강화, 경관개선 등이 예비계획에 반영돼 공모사업선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용준/기자



경북도, 수산물 온·오프라인 원원 상생 할인!



경북도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온·오프라인(메가쇼 시즌2, 사이소물, 바로마켓, 지역특산물협의회 연계 판촉전) 등에서 판매되는 도내 수산물 할인 비용 및 홍보행사 지원, 수산물 판매 소상공인의 택배비까지 지원한다.

도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일산 킨텍스 전시회에서 개최된 메가쇼 시즌2에 16개의 경북 수산업체가 쿠폰 행사를 진행했다.

수도권 소비자에게 경북 수산물을 소개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으며 동시에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 경북도 농특산물 소포몰인 사이소에서도 경북 16개의 수산식품기업 수산물에 대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최대 20% 할인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수산물 판매 소상공인에 게 택배비를 지원하는 등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가 매주 토, 일요일마다 운영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바로마켓 경상북도점'에서는 11월 18일부터 12월 3일까지 3주간 도내 수산식품 전시 홍보 및 쿠폰 할인전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

아울러 지역 특산수산물 협의회 소속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홍보 행사를 통해 소비 촉진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소비자 부담을 덜고, 어업인들은 수산물 소비량 증가로 경영안정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권 경북도 합동해지역본부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경북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좋은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2023 자원봉사 평가 우수상 수상

손병복 울진군수, "이번 수상은 울진군 자원봉사자 모두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활기찬 울진군을 만들겠다"

울진군은 지난 17일, 청도군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2023 경상북도 자원봉사대회에서 자원봉사 우수시군 평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경북지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참여도 및 증가율, 통합자원봉사단 운영, 행복마을 추진, 자원봉사 활성화 우수 시책 참여도, 자원봉사 활성화 기여도 등 7개 세부 지표를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울진군은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센터장 장태운)와 매년 행복마을 사랑배달 재능나눔, 밥차 무료 급식 운영, 재난·재해 지원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및 농촌 일손 지원, 안병 캠페인,

일단하자(1단체 1하천 자원봉사) 등의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내 자원봉사 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이날 대회에서는 자원봉사 대상 부문에 죽변면 새마을부녀회 전명화 회장이 동상을, 유공 부문에 후포면 남향모, 유공 단체 부문에는 죽변면 여성자원봉사회가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수상은 울진군 자원봉사자 모두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며, "이번에 수상한 자원봉사자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활기찬 울진군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군민이 직접 공약평가, 영덕군 2023년 주민배심원단 운영

전국 최초, 90대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주민배심원단 운영, 참 지방자치 실현 김광열 영덕군수, "공약 실천을 위해 매년 주민배심원단 운영 정례화, 적극적 주민 참여를 통한 군민과 함께 추진하는 공약사업을 진행, 정책의 책임성 제고 및 군정 갈등요소 완화와 주민과 공감하는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영덕군은 민선8기 2차년도 공약사업 이행점검을 위해 (사)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 하는 2023년 영덕군 주민배심원단을 지난 1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운영한다.

주민배심원단은 민선8기 1차년도에 확정된 공약실천계획서"를 토대로 공약사업의 진행사항 점검과 실천계획 조정, 아이디어/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주민배심원단이 직접 심의하게 된다.

주민배심원 선발은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10월 한달간 주민등록상만 19세 이상의 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ARS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명의 후보자를 1차 선별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거쳐 최종 35명을 선발했다.

특히 이번 영덕군 주민배심원단은 전국에서 최초로 90대 어르신이 과 20대 청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선발

되어 군민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전망된다.

영덕군 민선8기 공약사업은 지역개발부문 11개 사업, 문화관광부문 10개 사업, 농수축산 부문 6개 사업, 교육보건복지부문 18개 사업으로 소토부문 1개 사업 등 총 46건에 2,592억 원의 규모로 지난해 7월 김광열 영덕군수 취임이후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 이행완료 9건, 정상추진 37건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년 4월에 발표하는 전국 지자체 공약이행 평가에서 경북도내에서는 유일하게 7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SA) 자치단체로 선정됐, 특히 올 7월에 전남 순천에서 15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2023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문화활성화분야 군부단위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군민과의 공개적인 약속인 공약 실천을 위하여 공약사



업 이행과정에 있어 매년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정례화하여 적극적 주민 참여를 통한 군민과 함께 추진하는 공약사업을 진행하여 정책의 책임성 제고 및 군정

의 갈등요소를 완화하고, 주민들과 공감하는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예천사과 월드컵' 출품 사과, 어린이집연합회에 기탁 '2023 예천농산물축제 마지막까지 훈훈'

예천사과 월드컵 출품 28농가 5kg짜리 45상자, 어린이들의 맛있는 건강 간식으로 제공돼

예천군은 2023 예천농산물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예천사과 월드컵에 출품한 농가가 출품 사과를 기부하는 훈훈함을 전하는 등 마지막까지 따스한 정을 느끼게 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전 국민에게 받은 위로와 격려로 희망을 그린다!'를 주제로 개최한 '2023 예천농산물축제'가 15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특히 처음 선보인 '예천사과 월드컵'행사가 큰 인기를 얻었다.

'예천사과 월드컵'에 사과를 출품한 28농가는 경연이 끝난 후 월드컵에 출품하기 위해 선별한 고품질 사과를 5kg 짜리 상자에 재포장하고 45상자를 아이들의 귀한 간식으로 써달라며 예천군어

린이집연합회에 전달했다.

행사에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도 이겨내고 탐스럽고 단단하게 자란 예천사과 중 오직 맛으로만 최후의 승자를 가렸으며, 사과월드컵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객의 줄이 끊이지 않아 우수한 맛과 품질의 예천사과를 대내외에 크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권용준 농정국장은 "예천사과 월드컵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고 기부까지 해주신 농가에 감사드리며, 어린이들이 비타민C와 무기질이 풍부하고 맛있는 예천사과를 먹으며 감기도 예방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금자/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서명운동 100만명 돌파

25만명 지방도시 유치 열기 놀라운 성과, 서명운동 두달만에 120만6355명 동참 12월경 공모에 앞서 외교부 서명 전달 주낙영 시장, "경주 미래의 전환점이 될 정상회의 유치는 우리나라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전 국민적인 염원이 불과 두 달 여만에 100만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16일 기준으로 총 120만6355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희망 포럼'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출정 퍼포먼스를 통해 본격적인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린지 불과 2개월 조금 넘는 기간에 120만명을 훌쩍 돌파한 것이다.

이에 경주시는 17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주낙영 경주시장, 이철우 시의장,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박동룡 범시민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서명운동 참여기관·단체와 100만 서명운동 서포터즈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 서명 달성 기념행사를 가졌다.

신라시대 군약과 의장대의 모습을 재연한 신라고취대 공연과 함께 시작된 기념행사에서 APEC 정상회의 유치시 주회의장이 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건물 전면에 100만 서명 달성을 기념하는 초대형 현수막 제막 퍼포먼스를 통해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한편 시는 이번 100만 서명 달성은 그 동안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북도내 21개 시군과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는 물론 100만 서명운동에 대한 전 국민적 응원과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특히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앞서 경북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21개 시장군수의 지지 서명을 시작으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치홍보단과 시의회 유치 특별위원회도 도내 시군과 시의회를 직접 방문하며 100만 서명운동 동참을 적극 이끌어 냈다.

유관기관과 단체의 서명 활동도 끊이지 않았다. 자매도시인 대산시는 지역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서명운

동을 통해 일직감치 1만 서명부를 전달했으며, 농협 경주시지부에서도 대구·경북지역 농협과 두달간 연계해 3만8천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동국대 WISE 캠퍼스, 워터대, 경주대 등 지역 대학을 비롯해 경주시 홍보자문위원회,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각종 유관단체와 읍면동 자생단체에서도 지역 행사와 축제장은 물론 전국적으로 서명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했으며, 자원봉사서포터즈의 활약으로 신경주역과 황리단길, 동부사적지 등 주요 관광거점에서 100만 서명 홍보부스를 운영을 통해 서명운동과 유치 홍보 활동을 병행했으며, 각종 행사와 축제장 서명부스 봉사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참가해 서명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시는 이달까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오는 12월경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에 앞서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추진위원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인구 25만명에



불과한 지방도시에서 이와 같은 성과는 시도민은 물론 전국에서 경주를 지지해 주는 마음이 모인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보여주신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뜨거운 응원과 관심이 반드시 성공 유치를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주의 미래를 위한 일대 전환점이 될 정상회의 유치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전남도, 광주 민간·군 공항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 강조

광주시-전남도-무안군 3자 대화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전라남도는 17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지역 발전, 시도민 편의를 위해 국가계획 대로 광주 민간·군 공항을 무안국제공항에 동시 통합 이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날 기획조정실장 명의의 '군 공항 이전 관련 광주시 발표에 대한 전남도 입장'을 발표, 광주시-전남도-무안군 3자 대화를 강조하며, 공항 이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광주시의 적극적인 무안군민 설득 노력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입장문에서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국가계획에 일관되게 유지돼온 정책 기조라는 점을 분명

히 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은 통합공항으로서의 기능에 걸맞은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민간·군 공항의 통합 이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재원을 지역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사항을 광주·전남 지역민이 공감하기에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국제공항 통합'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광주는 57.5%, 전남은 55.1%로 나왔다"며 "전남도는 국가계획과 시도민의 뜻을 받들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지역발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사명을 완

고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국제공항 동시 통합 이전'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남도는 그동안 무안군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하고 이해와 공감을 구하기 위해 언론·대중교통·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문가 강연회, 토론회, 주민간담회 등 대 도민 활동도 펼쳤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광주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무안군민의 찬성 여론이 50.6%로 과반을 기록했다.

이를 근거로 전남도는 "이제 광주시가 무안군과 대화의 문을 열고 무안군민의 공감을 얻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누가 봐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합평군에 연연하는 것은 시간만 허비하고 소모적 갈등을 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3자 대화는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광주시가 진정성있는 노력을 보인다면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다.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무안군민 설득에 나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종배/기자

남원시 공공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

남원시가 올해까지 4년 연속 추진해 온 '책값 돌려주기 사업'이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올해는 이달 30일까지만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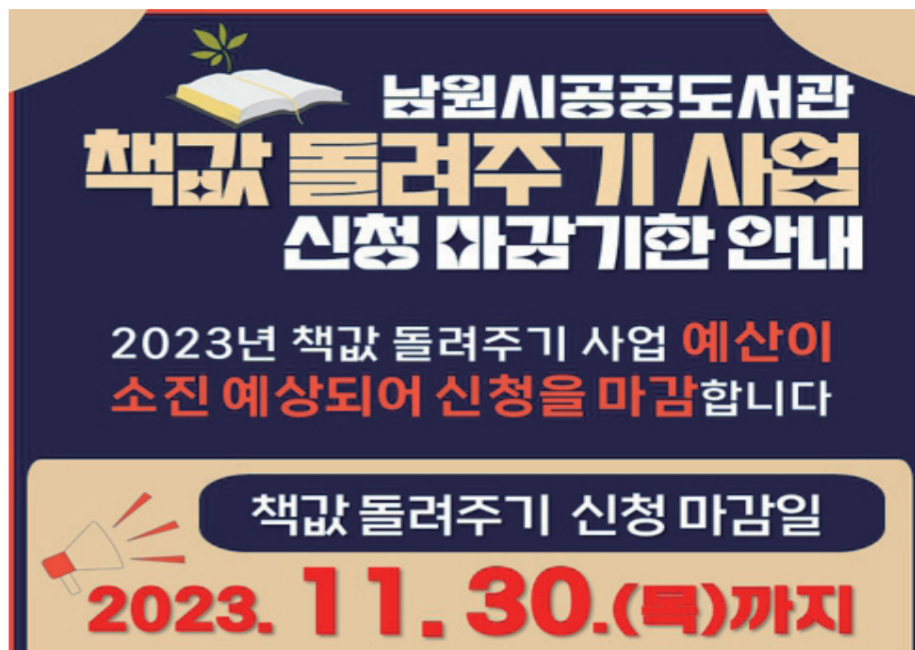
시에 따르면 올해 '책값 돌려주기 사업'에 현재 남원시민 1,066명 참여, 1,857권의 책을 구입해 읽으면서 올해 예산이 전액 소진 예상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지원을 마감하기로 했다.

책값으로 구입된 도서는 그동안 시민들의 선호도 및 추세(베스트셀러)가 적극 반영되면서 도서 대출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해왔다.

특히 시민호응도가 높은 만큼 남원시공공도서관은 올해 '2023년 책값 돌려주기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건의된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해 '2024년 책값 돌려주기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책값 돌려주기에 참여한 한 시민은 "매년 공공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원이 되다보니 지역서점에서 책도 구입하게 되고, 책도 더 읽게 됐다"면서 "시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줘서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독서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큰 호



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남원시공공도서관은 지역 서점의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자유롭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독서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물론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시민들이 남원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읽고,

한 달 이내에 남원시공공도서관(시립·어린이청소년)으로 구입한 책과 도서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월 2권 최대 4만 원까지 남원시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10월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남출/기자

함평군 노인복지관, 2023년 '제7회 청춘마을예술제' 성료

전남 함평군 노인복지관이 지난 13일 '제7회 청춘마을 예술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예술제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윤영량 함평군의회위원장, 이봉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회장, 군의원,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예술제는 '나비사랑 시니어합창단' 어르신들과 함평군 공립 어린이집 6~7세반 아이들이 함께 꾸민 세대 어울림 공연, 국민악단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들이 올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김윤하 관장은 "올 한해 어르신들께서 노인복지관에서 보내셨던 빛나는 순간들을 이번 예술제를 통해 질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군 모든 어르신들이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하고 활

기차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깨끗한 수돗물 공급합니다" 나주시, 노후 상수도관 세척 구슬땀

국비보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추진

전라남도 나주시가 노후 상수도관 세척을 통해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나주시는 국비 보조사업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10곳 동·면 지역 노후 상수도관 세척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세척 해당 지역은 송월·성북·남내·금남·죽림·남외·토계·삼도동, 금천·산포면 일원의 매설 후 16년 이상 경과한 총길이 1만 7249m의 노후 상수도관이다.

작업 방식은 물빠기 후 물이 거의 들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압축공기 및 소량의 물을 투입해 초속30m/s 이상의 태풍으로 배관을 세척하는 '허리케인' 공법을 적용했다.

나주시는 관 세척 시 수돗물 공급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수막 사전 게시, 전 세대 단수 안내문 배포, 세척 전·후 마을방송, 문자 발송 등을 하고 있다.

물 사용량이 적은 야간·새벽 시간대(21시~익일 6시) 작업을 추진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나주수도지사와 함께 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세척 전 과정을 상시 점검 중이다.

지난 9일 산포·금천면을 시작으로 20일(금성·남외동), 22일(성북·남내·죽림동), 24일(죽림·삼도·토계동) 나머지 구간에 대한 관 세척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노후 관로 세척에 따른 단수 조치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작업 시간 준수,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작업인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관망관리는 수돗물 공급 전체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주기적인 유지관리로 녹물 등 상수도

사고 위험을 사전 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나주시는 지난 2021년 사업 선정에 힘입어 총 53억원(국비 70%·시비 30%)을 투입해 수질자동측정장치(14개소), 자동드레인(7개소), 재염소 투입설비(1개소), 정밀여과장치(1식), 실시간 수압계(2세트) 설치 등 10개 사업을 완료했다.

김영안/기자

순천시, 순천광장신문 상대로 정정보도 받아내

언중위 '공공자원화시설 지하화 관련' 정정보도 결정.. "확인 절차 안거쳐"



순천시는 지난 10월 19일 순천광장신문이 보도한 '소각장지하화에 환경부직원 들조사 부정적'기사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결과 정정보도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고 2030년 쓰레기 직매입 금지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순천시 탄소중립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시설인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해 지난 6월 독립기구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연향을 일원을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 최적 후보지로 발표했다. 소각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지하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 친화시설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19일 순천광장신문에서는 '소각장지하화에 환경부직원들조사 부정적'이라는 기사를 보도해 환경부 사정

에 밝은 소식통이라는 불특정인물의 의견을 인용하여 지하에 공공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는 순천시의 계획이 환경부의 긍정적 반응을 얻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시는 이러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허위 보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순천광장신문을 10월 3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시설 지하화는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의 핵심 요소이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시는 환경부로부터 2020년부터 제도화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설 지하화가 권장되고 있으며, 시설 지하화를 할 경우 추가적인 국비 지원까지 해 주고 있다는 답변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있다.

언론위원회 광주중재부에서는 순천시의 정정보도 요청이 타당함을 인정하고 공공자원화시설 지하화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순천광장신문에게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정정보도문은

순천광장신문 홈페이지 정치/사회면에 11월 16일 게재됐다.

순천광장신문 측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부족 등 취재과정에 미숙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법을 및 관련 지침 파악 등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 지하화에 관련한 어떠한 문의도 없이 임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며, 순천광장신문은 허위보도 근절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 중재위원회 제소, 민형사 소송 제기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자원화시설 지하화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순천시는 환경부-전라남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승준/기자

진도군, 전남도 내 공공비축미 특등 비율 1위

특등 비율 58.6%, 지난해보다 25.8% 증가

진도군이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건조벼를 2,744톤 매입했고 11월 말까지 4,016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군은 15일 기준 매입 물량 중 특등 비율이 무려 58.6%에 달하고 지난해 특등 비율 32.8%에 비해 25.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광주를 포함한 전남도 내에서 최상위권의 진도산 벼는 우수한 품질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수매 때마다 군수를 포함한 NH농협 진도군지부장, 각 읍면장, 지역농협장, 농업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참여해 농가 지도와 수매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며 힘써기 때문이다.

특히 군은 농가 부담을 줄이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쌀 생산농가 수매보전 지원금과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등 사업비 약 23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진도 쌀 품질 유지에 집중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올 한해도 병해충 등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애쓰는 농업인들께 감



사드린다"며 "계속되는 쌀값 하락으로 시름에 잠긴 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앞으로의 매입 일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시행된 품종검정제도에 따라 농가가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

과 출하품종의 일치여부를 확인(DNA검사)해 매입품종인 새창무와 강대찬 외의 품종이 20% 이상 혼입 시 해당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영진/기자

전북도 전자민원모니터, 생생한 도민 목소리 전달

전라북도 전자민원모니터 성과 보고와 역량 강화 교육

전북도는 1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14개 시군 80여 명의 모니터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자민원모니터 성과보고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안·제보 활동 우수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 및 감사장이 수여됐으며 그동안의 성과 및 우수 사례 공유, 범정부 민원통합망 관리 체계에 대한 직무교육도 이뤄졌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한 일상생활 속 응급처치 관련 교육에 이어 앞으로 강화될 현장 행정 계획 소개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홍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민선 8기 도정 비전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민과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

하며 전자민원모니터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또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소통이 시작된다"며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원활하면 민원 발생 이전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도민 소통 강화를 위한 모니터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자민원모니터는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제보부터 도정 현안 및 정책에 대한 도민 여론 수렴 등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2022년도에 모니터로 위촉되어 2023년은 190여 건의 제안·제보를 접수했으며 접수된 민원은 도와 시군 담당 부서로 배정되어 7일 이내에 회신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출/기자



구례군, 생활 속 불편함에 도로명주소가 함께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깨끗한 마을 경관으로 주민 호응

전남 구례군은 지역 내 단독주택의 낡고 훼손된 우편함을 제거하고 도로명주소와 세대 성명이 표기된 우편함을 새롭게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군은 도로명 주소 홍보용 우편함을 읍면 14개 마을 217세대에 설치했다. 군은 1,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편함 설치를 신청한 마을을 우선으로 우편함을 교체했다. 앞으로도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하여 우편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된 우편함 전면에는 도로명주소와 세대 성명이 표기돼 있어 우편·택배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될 수 있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 주민들은 "새로 설치된 우편함이 편리하고 실용적이면서 깨끗한 마을 경

관을 조성하는 데도 한몫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어 이제는 정착 단계지만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완도 해양치유센터' 본격 운영 시동 건다!

해수, 갯벌, 해조류 등 해양자원 활용 16개 치유 요법 시설 갖춰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연면적 7,740 m² 규모, 총 16개의 치유 요법시설을 갖춰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국내 최초로 건립된 완도 해양치유센터(전남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61번길 94)는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이다.

센터 1층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해수 풀인 '탈라소풀' 등 5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탈라소풀'에서는 수중 노르딕 워킹 등 각종 수중운동과 에어 버블을 통해 수압 마사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신 이완과 통증 완화, 근육통 해소에 도움이 된다.

'해수 미스트'는 해수를 미세한 입자로 분사하여 해양 에어로졸을 흡입함으로써 호흡기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며, '명상 풀'에서는 몸을 물 위에 띄운 상태로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아 스트레칭을 하면 긴장 완화, 스트레스 및 불면증 해소 등에 효과가 있다.

'머드 테라피'는 완도에서 채취한 천연 머드를 몸에 바르면 독소 배출, 피부 개선 등에 좋고, '해조류 거품 테라



피'는 해조류의 영양 성분을 거품화 해 전신에 발라 마사지하면 피부 재생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

'명상 풀'과 '해조류 거품 테라피'는 시범운영 기간 체험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꼽혔다.

2층에는 11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먼저 건강 측정실에서 체형 분석 및 피부 상태 측정 후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11개 프로그램은 해수 풀, 스팀 샤워, 비쉬 샤워, 바스 테라피, 저주파 테라피, 해조류 머드 랩핑 등 습식 테라

피와 오감을 테마로 한 컬러, 소리, 음악, 향기, 스톤 테라피 등 건식 테라피로 구성됐다.

'해조류 머드 랩핑'은 해조류 또는 해조류 분말을 해수 또는 머드에 섞어 피부에 도포하면 붓기 및 관절염 통증 완화, 피부 개선 등에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필라테스, 요가 등을 할 수 있는 GX룸과 휴식과 함께 차, 다과 등을 즐길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있다.

지난 9월 21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총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했으며,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족'이 90%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군은 시범운영을 마치고 11월 24일 개관 준비와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은 "해양치유센터 본격 운영되면 국내 해양치유산업이 본격적으로 오르다"면서 "해양치유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영울/기자

김성 장흥군수, '서울평화문화대상(문화예술행정 부문)' 수상

2023년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원년 선포의 결실 맺어



김성 장흥군수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의회관에서 2023년 서울평화문화대상 문화예술행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서울평화문화대 상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일보, 도민일보, 서울매일, 시사통신이 주관하여 전문 분야별로 공헌한 인사를 선정해 시상하여 사회를 위해 앞장서는 선도자들을 널리 알리고 그로써 사회 발전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2023년 문화예술

관광 르네상스 원년'과 '대한민국 통일 시작의 땅 장흥'을 선포해 차별화된 지역브랜드 구축, 문림의향의 고장인 장흥의 얼을 이어가기 위한 제1회 장흥문학제 개최, 전국 유일 안중근 의사 사당 해동사에 역사 추모관 설립 등의 공로가 인정되어 문화예술행정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김 군수는 문화예술분야뿐만 아니라 개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국립 전남 호국원' 유치에 성공하는 등 다방면에서 장흥의 발전 원동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김 군수는 "올해를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원년으로 선포하고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맘 흥난 성과를 인정받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문화 다양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목포시, 폐현수막 활용한 '큰물고기' 자루 제작 사업 추진

폐현수막 재활용해 푸른바다 큰물고기 과업 수행

목포시가 전라남도 주관의 '2023년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해 큰물고기 자루 제작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목포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가 선정됐는데, 재활용이 어려운 폐현수막을 활용한 신규 사업인만큼 지자체가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목포시 새마을지회와 함께 큰물고기 자루 150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큰물고기 자루를 이용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삼학도, 북항노을공원, 평화광장에서 청결활동을 진행했다.

청결활동 외에도 제작된 자루 전시와 배부도 이어진다.

시는 노을공원과 평화광장에 중형 물고기 자루와 소형 물고기 자루 30개를 오는 26일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수막 자투리를 활용한 자루 및 장바구니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박종배/기자



보성군,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보성녹차' 관리 철저

지리적표시 등록업체 품질관리로 명품 녹차 유지



보성군은 오는 20일 붓재에서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된 '보성녹차'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지리적표시 등록업체 품질관리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엄격한 품질관리로 명품 보성녹차의 명성을 유지하고 안전한 차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보성녹차연합회 주최로 전남 차산업연구소 김은혜 박사 등 15명의 심사위원이 녹차(우전)의 잎 형태, 색택, 우려낸 차물의 색, 향, 맛, 우린 차

의 잎 모양 등을 평가한다.

'보성녹차'는 2002년 농산물분야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돼 차의 역사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공인받았다.

'보성 차'는 2009년부터 미국(USDA), 유럽(EU), 일본(JAS) 등 국제 유기인증을 획득하며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보성차는 차산업과 연계한 기업유치,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운영성과를 인정받아 우수특

구로 지정돼 2012년, 2014년, 2019

년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은 바 있다.

2018년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돼 그 역사성과 우수성, 주민생계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보성군 관계자는 "명품 보성녹차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진출하는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국제시장 대형 프리미엄 마켓 입점 등 전 세계에서 보성차를 만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영/기자

강진군, 전 군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강진군보건소, 9개 위탁의료기관서 무료 접종

강진군은 내년 3월 31일까지 생후 6개월 이상 전 군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접종은 강진군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 9개소(강진의료원, 강진아파의원, 오케이내과의원, 오창근의원, 연세의원, 성모의원, 우리들내과의원, 정준성내과의원, 마량의원)에서 가능하다.

6개월~4세까지는 모더나XBB.1.5 백신의 경우 8주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하고, 화이자XBB.1.5 백신은 8주

간격으로 3회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단, 5세 이상자는 이전 접종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으로 완료된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생후 6개월 이상 고위험군은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11월 14일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36%(4,609명)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XBB계열)에 대응해 개발된 XBB.1.5 화이자, 모더나 백신으로 과거 접종력

과 관계 없이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나면 가능하다.

서현미 강진군 보건소장은 "겨울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꼭 접종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윤호/기자



강원도, 골똥 없는 황금 산업 강원 MICE 육성 '집중'

지역 MICE 인재육성 '강원-제주 MICE 서포터즈 교류 워크숍' 진행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2023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OREA MICE EXPO_KME) 참가 및 강원 MICE 서포터즈 워크숍을 추진했다.

재단은 16일과 1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MICE 산업 박람회인 '2023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에 참가해 도내 MICE 관련 13개 얼라이언스 협력사와 공동 마케팅 활동을 펼쳤으며, 학·협회 및 인센티브 여행사 대상 150건의 상담을 통해 10건의 MICE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도내 대학생으로 구성된 강원 MICE 서포터즈와 제주컨벤션부로 서포터즈 간 교류 워크숍을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제주 MICE 산업대전 체험 및 전문가 특강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지역 MICE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강원자치도의 관광 자원과 축제, 이벤트 등을 적극 소개했다.

재단 최성현 대표이사는 "MICE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도내 관련 산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은 개막 2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와 서포터즈 워크숍 참가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했으며, 향후 개최되는 춘천 한중 관광축제, 로보컵 아시아퍼시픽 대회 등 국내외 행사에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등원/기자

2024년('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대비 제3차 정량지표 실적향상 보고회 개최

태백시는 지난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정운 부시장 주재로 2024년('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대비 제3차 정량지표 실적향상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는 12개 부서 17개 팀의 팀장이 참석하여, 2023년 10월 기준 미달성 상태인 정량지표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목표치 달성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태백시는 12월 말까지 ▲야동보호체계 구축 노력 ▲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 집행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 ▲건강하

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등을 특별 관리해 연말까지 모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정운 태백시 부시장은 "정부합동평가는 지표 담당 부서는 물론 전 부서의 관심과 열정에 따라 달성여부가 좌우되는만큼, 12월 말까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지난해 미달성 지표들과 강원특별자치도 가중치 지표를 중점으로 달성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유성근/기자



충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도·시군·전문가 머리 맞대

17일 도-시군 협의체 회의·전문가 워크숍...한국판 실리콘밸리 구상

충남도는 17일 천안아산 인근 소설 캠퍼스 온 충남에서 충남연구원과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 관련 도·시군 협의체 회의 및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도·시군 관계 공무원, 충남연구원, 민간합동추진단,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1부 도·시군 협의체, 2부 민간합동추진단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도정 핵심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참신한 사업화 전략을 논의하고 정책 수립 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도시권으로 육성하는 민선 8기 핵심과제로, 도와 경기도는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홍원표 충남연구원 책



임연구단장이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비전과 전략 등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자문위원회의 자문이 이어졌으며, 도·시군 관계자와 민간합동추진단 등 참석자들은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도는 이날 도출된 여러 의견을 종합 검토해 다음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전 경기도와 내용을 협의·조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중 충남연구원은 연구진 2차 합동 워크숍을 통해 베이밸리의 교두보 역할을 위한 추가 협업사업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베이밸리 추진 전략을 단기,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해 지속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도와 경기도의 발전을 주도할 진정한 메가시티를 구축할 방침이다.

고 국장은 "도의 발전과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 중인 자문위원회, 민간합동추진단에 감사드린다"라면서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도록 조만간 미래 세대를 위한 대범한 계획을 마련해 선도적인 모형을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해 지난 3월 베이밸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했으며, 4월 도·시군 협의체 회의와 주요 현장 답사, 5월 미국 실리콘밸리 공무원 국외연수, 6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10월 충남연구원·경기연구원 합동 워크숍 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착실히 과정을 밟고 있다.

최정근/기자

아산시, 구국 전쟁영웅 아산 '인간 이순신'을 조명하다

17일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 개막, 3일간 대장정 돌입

아산시가 17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기리고 '인간 이순신'을 조명하는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개최했다.

이번 순국제전은 오는 19일까지 총 3일 동안 '그리운 사람 이순신이 온다'라는 슬로건으로 온양민속박물관, 온양온천역, 은행나무길, 현충사에서 이순신 장군의 장례행렬 재연 등 각각의 테마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첫날 개막 행사는 온양민속박물관 특별전시회로 시작했다. 이날 박물관 1층 로비에는 100여 년 역사를 가진 국내 유일 '32인 상여'를 복원해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복원에는 신탁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이원섭 국가무형문화재 매듭 기능 보유자, 홍성호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기능 이수자, 조경숙 서울시무형문화재 11호 침선장 이수자 등 한국 전통 공예 명장들이 참여했다. 상여에 대한 전문 해설도 호응을 얻었다.

특히 1층 세미나실에서는 김시덕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와 임민혁 한국외대문화연구소장, 박종민 충청북도 문화재 위원장 등 국내 최고의 학술가들과 함께 전통 장례문화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인문학 콘서트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죽음은 이별이 아닌 만남'이라는 우리 전통 장례 행사의 취지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죽음에 대한 참 의미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김시덕 교수는 "지금까지 칼을 든 전쟁영웅 이순신으로만 보아왔던, 이번 순국제전은 '인간 이순신'을 들여다보는 차원에서 예장(禮葬·국가에서 예를 갖춘 장례)을 준비했다"며 "아산은 장군의 무덤이 있는 도시로, 장군의 영혼이 시민과 함께 지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장군의 죽음을 아산에서 조명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온양민속박물관 '32인 복원 상여' 최초 공개

인문학 콘서트 등 테마별 프로그램 '풍성'

이와 함께 온양민속박물관에서는 청강문화산업대학 만화창작스쿨 홍윤표 교수와 학생들이 그린 '이순신 순국제전 특별판' 웹툰이 소개되며, 장군의 일대기 영상도 상영한다.

또, 박물관 2층에서 '복을 불러오는 닭, 행운의 꼭두 만들기'와 '고인을 기리는 문구를 달은 깃발, 만장 만들기', '액운을 쫓는 전통 탈, 방상시탈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진행됐다.

저녁 시간 은행나무길 실터 미디어아트월에서는 장군의 새로운 미디어아트 영상이 상영됐으며, 현충사와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이순신 명품 이야기관의 해설도 순국제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개막식에 참석한 박경리 시장은 "그동안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을 기념한 '성웅 이순신 축제'를 개최해 왔고, 이제 장군을 아름답게 떠나보내는 순국제전을 열었다"며 "예장은 국왕과 왕실 외에도 국가에 큰 공을 세운 공신에게 허용됐다. 그래서 장군의 운구행렬을 예장으로 고증·재연했다"고 강조했다.

"아산시는 이순신 장군이 영면하신 곳으로서, 성웅의 운구 일화와 장례행렬을 제대로 고증·재연해 장군 순국의 의미와 인간적인 면모를 전국적으로 알리려 한다"고도 했다.

이어 "이를 위해 '판소리 이순신가', '현충 제례악'을 창조했고, 32인 상여를 700여 명이 모시고 가는 장엄한 행렬을 진행한다"며 "장군을 아름답게 보내는 걸음걸음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순국제전은 순국 선포식, 전통 국악공연 '성웅 충무공 이순신가' 판소리와 '충무공 이순신 현충 제례악', 이순신 장례행렬, 음복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원호/기자

충북도, 경력단절여성 사회재도약 인턴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충북여성인턴제를 통해 경력단절(미취업)여성 단계적 일 경험 기회 제공

충북도는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와 2023년 충북여성인턴사업에 대한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인턴생활을 잘 마친 인턴 참여자를 축하하기 위해 17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시·군 인턴 참여기관 담당자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충북여성인턴의 날'을 개최했다.

충북여성인턴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한 전국 최초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여성을 위한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올해까지 18년 동안 1,300여명의 충북여성들이 참여한 지역 주도 지속형 여성일자리 지원 사업이며, 지금까지 충북여성인턴사업에 참여했던 여성들은 인턴 경험을 살려 경력직무 유관분야로 취업 연계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55명의 충북여성인턴을 선발하여 ▲여성취업지원분야 ▲사회복지분야 ▲청소년지원분야 ▲평생학습지원분야 ▲마을활동가분야 등 공공·사회서비스기관에 배치하여 단계적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조직생활 및 직무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분야별 역량강화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이번 충북여성인턴의 날 사례발표에서 충주시 인턴사업 참여자는 "배치된 청소년관련기관의 업무가 퍼즐같았다"면서 "똑같은 일보다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충북여성인턴제가 사회로 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어 용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



여자는 "예상 했던것보다 가사와 육아, 인턴생활을 병행하는게 힘들었지만 집에만 있는 엄마가 아닌 직장인이 된 듯한 엄마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다"고 말하는 등 충북여성인턴제를 응원했다.

충북도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충북여성인턴사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들이 사회에 재진입하는데 큰 도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강원자치도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청정수소 분야 신규사업 발굴 협력



- ① 수소법, 화관법, 건축법 등 반영된 설비 배치
- ② 추가 사업확장 가능하도록 충분한 여유공간 확보
- ③ 관련 인허가 완료 및 산업공단지 부지 인프라 활용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시, 한국동서발전, 대우건설, 제아이엔지와 11월 17일 강원자치도청에서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와 심규연 동해시장,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대표이사,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이사, 박인규 제아이엔지 대표가 참석하여 동해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의 성공적인 추진과 강원자치도 청정수소 산업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된다.

정부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청정수소에 대한 기업의 투자 및 연구개발, 상용화가 활발해지면서 청정수소 세계시장 규모는 2050년에

1,810조 원으로 전 세계 수소시장의 8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청정수소 인증제 등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면 청정수소 시장은 한층 더 성장할 전망이다.

강원자치도는 청정수소 시장에 맞춰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 저장탱크 및 압축설비, 출하용 튜브트레이러 활용을 통한 저장·운송, 인근 충전소·국방과학연구원 수소를 활용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청정수소 생산기지 선 도모를 제시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사업은 동해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으로, 태양광과 바이오매스 발전전력을 연계, 수전해 기술을 활용하여 하루에 1톤의 청정수

소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각 기관별로 우선, 한국동서발전은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설비 운영 등 사업을 총괄하고, 대우건설은 생산기지 설비를 구축하며, 제아이엔지는 생산기지 설계와 운영관리에 참여한다. 강원자치도와 동해시는 인·허가, 행·재정지원과 수소 활용처 발굴에 적극 협력한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자치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의 강점을 활용하여, '청정수소 산업'과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함께 나아가 수 있도록, 청정수소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수소공급 안정화와 비용절감 등 국민 생활여건 개선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건강기능성 캔디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 (주)윌리엄자일리톨 강유주 대표를 만나다!

단맛은 인간이 좋아하는 맛중에 하나로 단맛이 없다면 무슨 맛으로 살까, 텅과 쓰고 맵고 짜기만한 세상에 살맛이 날까. 거 부할 수 없는 맛이지만, 단맛은 수시로 충 치, 당뇨, 비만, 고혈압 등 건강 사이렌을 울 리기도 한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아 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 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대체 감미료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예견이라 도 한 듯 2021년 국내 최대 규모의 자일 리톨 캔디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100% 핀란드산 자일리톨로 만든 건강기능성 캔디로 글로벌시장 공략에 나선 강유주 (주)윌리엄자일리톨 대표와 자일리톨에 관한 궁금증을 푸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일리톨이란? 자일리톨은 핀란드의 설탕회사 핀수 가가 1972년 개발한 천연 감미료이다.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위해 정부의 적극 협력을 받았다.

자일리톨은 다양한 과일과 채소 등에 소 량 존재한다. 인체에 포도당 대사과정과 중간 산물로서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수 수속이나 자작나무에서 자일란을 추출하 고 이를 가수분해해 자일로스 생산, 자 일로스를 금속 촉매하에 고온, 고압, 수소 첨가(수첨)반응에 의해 제조한다.

효모 등을 이용한 발효법으로 제조하 기 도 하며, 다단계의 분리, 정제 공정을 거 쳐서 결정, 건조, 분쇄해 최종 제품을 생산 한다. 감미도 0.7~0.9로 설탕과 비슷하 지만 열량은 2.4kcal/g으로 설탕보다 낮 으며, 용해열이 커서 입안에서 느끼는 청 량감이 크다. 자일리톨은 충치균의 억제 효과와 함께 치의 분비를 촉진해 구취 예 방과 치아 보호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널 리 알려져 있다.

자일리톨 스톤이란? "자일리톨 스톤"은 (주)윌리엄 자일 리톨에서 개발한 100% 핀란드산 자일 리톨로 만들어진 국민건강캔디이다. 앞서 말씀드린 자일리톨의 장점만을 모아 만들 어진 캔디로, 자체 개발한 틱케이스에 담 겨져 있으며, 총 20가지의 맛으로 구성 되어 있다.

설탕으로 만든 캔디와 달리 끈적함이 없으며, 천연향료와 천연 색소를 사용하 여, 치아의 변색 또한 최소화했다. 당 함 율이 0%인 당계 캔디로 당뇨 환자 및 임산부도 마음껏 즐겨 먹을 수 있는 국민 건강캔디이다.

자일리톨은 천연감미료라고 했는데 인 공 감미료와는 어떻게 다른가?

현재까지 개발된 감미료는 제조방식 에 따라 천연 감미료와 인공 감미료로 구 분한다. 천연감미료는 다시 사용되는 원 료의 특성에 따라 당질계 감미료와 비당 질계 감미료로 분류한다.

당질계 감미료는 포도당, 과당 등을 포 함하는 단당과 설탕과 엿당 등을 포함하 는 이당 및 이들의 혼합물, 올리고당류가 있다. 자일리톨은 당질계 감미료로 저칼 로리, 고감도 감미료로서 설탕 대체제로 시 가능성이 높고, 인체에 대한 안정성이 인공 감미료보다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요즘 논란이 된 아스파탐과 자일리톨스 톤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아스파탐은 1965년 미국 G.D. SEALE & COMPANY 몬산토사가 개발 한 합성(인공)감미료이다. 저칼로리로 실 제 감미도도 좋지만, 열 안정성이 결여돼 사용 용도가 한정되는 약점이 있다.

또한 개발할 때 부터 일부 성분이 발암 물질로 변인된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았는데 이번엔 세계보건기구(WHO)

에 의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됐다.

자일리톨 스톤은 아스파탐과 전혀 관계 가 없으며 천연감미료인 100% 핀란드산 자일리톨과 천연향료, 천연색소만 만들 어진 캔디이다.

앞으로 자일리톨 스톤의 계획은?

자일리톨 스톤은 현재 스마트스토 어, 쿠팡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 니라, 노브랜드, 신세계백화점(일부매 장), 자연드림, GS25(일부매장), 올리브 영 등 대형 오프라인매장으로까지 판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아마존 및 쇼피, H-MART 등 해 외 온·오프라인 마켓에서 판매가 이루어 지고있지만, 수출에 보다 힘써 대한민국의 국민건강캔디를 넘어서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즐길 수 있는 건강캔디를 만들 기 위한 성장세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최재은/기자



국방부, "사이버 전투역량은 국가안보의 핵심", 『2023 화이트햇 콘퍼런스』 개최

사이버작전사령부 주관 해킹방어대회『2023 화이트햇 콘테스트』시상식도 진행

국방부가 주최하고 사이버작전사령부 가 주관하는 2023 화이트햇 콘퍼런스가 11월 16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개최 됐다.

화이트햇 콘퍼런스는 사이버분야 우수 인재 발굴과 국방 사이버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정례콘 퍼런스로, 사전 진행된 해킹방어대회를 통해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전문가 특별강 연 등 최신 사이버위협 기술 및 동향을 공

유하는 자리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 화이트햇 콘퍼런스에서는 민간군 전문가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 전투역량은 국가안보의 핵심'을 주제로 국방 사이버안보의 비전을 제시하고,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행사는 개회사에 이어 신원식 국방 부장관의 환영사,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국회 정보위원회

유상범 의원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어 고려 대 박노형 교수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 대 한 기초강연과 2023 화이트햇 콘테스트에 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일반부, 청소년부, 국 방트랙 각 분야별 상위 3개 팀 수상자들에게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한편, 미 사이버사령관 폴 나카소 네 (Paul Nakasone), 나토(NATO) 사이버방위센터 마트 누르마 (Mart Noorma) 센터장 등이 사이버안보와 국 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 영상을 보내와 화이트햇 콘퍼런스 개최의 의미를 더해주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초국가적인 사이버위협이 날로 증대됨 에 따라 국방사이버역량은 미래전 승패 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우리 군 은 국방분야에서 전방위 사이버위협에 대 응하는 선제적·공세적 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하여 작전능력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정책과 제도, 범국가적 협력체계를 발전 시켜 사이버 전투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동길 사이버작전사령관은 "이 번 화이트햇 콘퍼런스는 국가안보의 핵심 인 사이버전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군이 함께 모인 소중한 자리이며, 특히 청 년 화이트해커들이 사이버안보의 중요성 에 대한 영감을 얻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 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이버작전사령부 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으로 사이버 전 장에서의 우세 달성을 위해 임무에 매진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후에 진행되는 전문가 특별강연에서 는 S2W 김재기 사이버위협인텔리전스 센터장이 다양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 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다크웹 사이버위 협 분석'에 대해 강연하고, 티오리 박세준 대표는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리더십' 특별강연을 각각 진 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23 화이트햇 콘퍼런스』 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우수인력 획득과 복무여건 개선, 작전수행 기반체 계 및 국내외 사이버공조체계 구축을 위 한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군 사이버 전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 했다.

최광수/기자

주최: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주관: 사이버작전사령부
K.O.C Cyber Operations CMO

화이트햇 콘퍼런스

2023 WHITEHAT CONFERENCE

사이버 전투역량은 국가안보의 핵심

2023년 11월 16일(목) 10:00 ~ 15:10
포시즌스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 (3F)

경북 세계유산 을 통해 지방시대를 견인하겠습니다!

경북도 GYEONGBUK-DO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UNESCO Korea in Korea

경북 세계유산

지방시대

핵심과제

- 외연확장**
기아고분군(고령 지산동 고분, '23.9. 등재유역), 태실, 한지, 활문화 등 신규발굴
- 맞춤형 관광자원화**
신라왕경 역사자료길, 하회천 퀸로드, 서원·산사 명품순례길 조성
- 디지털 대전환 선도**
천년 신라왕경 디지털(메타버스) 복원, 천년 유교경전길 건립
- 문화유산 생태계 혁신**
디지털 콘텐츠 산업클러스터 조성, 답리닝 기반 전통기록물 해독

박근종 칼럼

‘그냥 쉬는’ 청년층 41만 명,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근본 대책 강구를

올해 들어 고용률이 나아지고 실업자가 줄고 취업자 수는 지난 8월 이후 석달 연속 증가 폭을 확대하며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아쉬게도 청년층만 비껴나가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지난 11월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76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6,000명 증가했다. 지난 7월 21만 1,000명까지 줄었다가 8월 26만 8,000명, 9월 30만 9,000명, 지난달 34만 6,000명으로 꾸준히 늘어 10월 기준으로 1982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체 고용률이 1년 전에 견줘 62.7%에서 63.3%로 0.6% 포인트나 상승해 고용률만 놓고 보면 고용 사정이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라서 더없이 좋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 호조의 이면은 그다지 밝지 않다. 통계청이 지난 8월 27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같은 기간 46.4%에서 제자리걸음인 데다 일자리를 찾지 않고 쉬는 그냥 ‘쉬었음’ 청년층이 41만 명에 달해 좋아할 만한 처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려스럽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대였던 전체 청년 인구의 4.9%에 이르러, 2배가량 뛰어오른 것이다. 그냥 ‘쉬었음’ 인구는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를 뜻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에서 공채보다 수시·경력 채용 중심으로 고용환경이 바뀌면서 취직 관문이 더욱더 좁아지고 구직 실패가 거듭돼 아예 포기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쉬는 기간’이 길어진 청년을 장기방치하는 경우 이들의 고용가능성이 작아지면서 잠재성장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냥 ‘쉬었음’ 기간이 늘어나면 고용가능성이 줄고 일자리의 질도 나빠질 뿐 아니라 고립·은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적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청년 ‘쉬었음’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1조 원 규모를 투입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우려 때문으로 매우 시의적절하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 경험을 제공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에서 7만 4,000개 인턴 기회 제공,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지원,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 워라밸 구축 사업장에 1인당 30만 원 지원, 심리상담 등 쉬는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청년 취업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돌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더 정교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기업·중소기업과 취업준비생 간의 ‘일자리 엇박자(Mismatch)’는 실업문제

의 근본 원인으로 악순환해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쉬는 청년이 급증한 이유를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등 복합적인데 있다고 진단해 왔다. 따라서 처방 역시도 복합적이어야 한다. 우선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 사슬을 과감히 혁파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 구조부터 해소해야 한다. 일할 사람을 찾는 직장은 많은데 정작 그러한 직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려는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다.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을 치는데 정작 청년들은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미스매치(Mismatch)의 원인이 결국은 근로환경과 임금 격차에 있음을 명찰해야 한다.

통계청이 지난 11월 1일 발표한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16만 3,000명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줄었지만, ‘쉬었음’ 인구는 같은 기간 8만 3,000명 늘어난 232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뜻한다. 통계청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왜 쉬었는지’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5~29세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다. 비슷한 사유인 ‘일자리가 없어서’도 7.3%였다. 이어 ‘다들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23.9%), ‘몸이 좋지 않아서’(18.2%) 순이었다. 통계청은 나이대가 낮으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쉬는 비중이 많았으며, 고령층에선 건강상 문제 등 다른 이유가 있어 쉬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일하거나 교육받을 의지가 없는 구직단념자)’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수료·중퇴 포함)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1만 8,000명이었다. 또한 사회초년생 나이대인 20대에서 일을 쉬는 ‘니트족’뿐만 아니라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프리터족(Free + Arbeit |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고용률이 높아짐에도 젊은 ‘니트족’들이 양산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가 적다는 점이다.

청년 취업난의 장기화를 넘어 고착화는 당사자들에게도 당연히 고통이지만, 국가 장래에도 어둡고 무거운 암운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탈취나 갑질 근절을 포함해 노조화

동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갈 수 있는 첩경이다. 중요한 건 청년이 ‘쉬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일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8월 27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인구 841만 6,000명 가운데 재학·휴학생을 제외한 최종 학교 졸업자(수료·중퇴 포함)는 452만 1,000명이고, 이 중 126만 1,000명이 미취업 상태였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청년 백수’가 넘쳐나는 암울하고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첫 취업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10.4개월이었지만,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32만 4,000명(8.4%)에 달했다. 오랜 시간을 들여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문을 뚫어내는 게 참으로 쉽지 않다는 해석이다. 이는 청년 취업난이 구조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 첫 직장 재직기간은 평균 1년 6.6개월에 그쳤다.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절반(49.4%) 가량은 전공과 맞지 않는 일자리라고 하니, 3명 중 2명(66.8%)이 첫 직장에 취업하고도 그만둔 게 이상하지 않다. 게다가 취업 후에도 자기개발은 끝이 없으니, 국가기술자격은 청년이 꿈을 향해 달리는 기나긴 ‘커리어 맵(Career map)’의 이정표와 같다. 중요한 건 청년이 ‘쉬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직무능력’이다. 이런 유·무형의 직무능력을 채용·인사 단계에서 검증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청년 취업 ‘사다리’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과 일을 이어주는 사다리의 무게를 덜어주어야 한다.

2024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청년 지원책도 눈에 띈다. 대학생에게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 규모가 연 23만 4,000명에서 39만 7,000명으로 확대된다. 자립 준비 청년(만 18세가 돼 양육 시설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이자 동족방뇨(凍足放尿)의 미봉책(彌縫策)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엇박자(Mismatch)’해결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하고 잘하는 산업 분야에서 고품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박근종(작가·칼럼니스트) 현, 서울시자치공공단이사장연합회 회장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전, 소방준감 전, 서울소방제1방면지휘본부장 전, 종로·송파·관악·성북소방서장

칼럼 ‘지방화 시대 죽이는 수도권 반도체 규제 완화’ 도대체 지방화시대 국정 목표는 어디로 ...

지난 8월 15일, 반도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소재·부품·장비기업이 허용됐고, 지난 11월 5일 언론에 공식적으로 이 규제 완화가 발표했다. 솔직히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의 반도체 규제를 풀어 주는 반도체 규제 완화 정책이 있을까 노심초사 해 왔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돼 한층 더 충격을 줬, 도대체 지방화 시대 국정 목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투 의아함을 감출 수 없게 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같이 지난 8월 중순,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는 용인시가 건의한 협력화단지 미분양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비수도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해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입주를 허용한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이와같은 용인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 들여 수도권 산업 단지 미분양을 지방 기업으로 채우는 일도당도 않는 일을 만들므로써 특하나, 대구·경북 최대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 것이 돼, 향후, 이로인한 대구·경북의 미래는 암울함으로 치달을까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다.

즉, 수도권에 밀집된 반도체 장비기업에 더해 소재·부품 관련 기업까지 수도권에 열리게 된다면 그 어디보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방은 바로 구미시가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게다가, 지난 7월 24일, 비록, 구미시가 비수도권 유일의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지정’됐지만, 이와같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 구미시는 이 특화 단지에 야심찬 계획으로 340개 기업 입주, 4조7천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대한민국 최대의 반도체 도시 구미를 육성시키려는 구미시의 원대한 목표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해 보인다.

이는 마치 지난 20년 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라 LG LCD 공장이 수도권인 경기도 파주에 넘어간 것이 있었기에 이러한 일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

을까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하는 부분이다.

솔직히,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정부가 출산해서 지방화시대를 위해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도 부족할 판이다. 한데, 어찌하여 지방의 기업을 수도권으로 끌어 들이려는 정책을 펼치려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일은 곧 말로만 ‘지방화시대’란 허울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과 진배가 없으니 더욱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이리된다면 결국 지방화시대는 심대한 타격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만 한층더 가중 시킬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어 보인다.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미시는 대한민국 반도체 도시로 불려 온 도시이다. 만약 이대로 수도권 반도체 규제 완화가 100% 현실화돼 시행해 나가게 되면, 구미시가 입게 될 타격은 심각함 자체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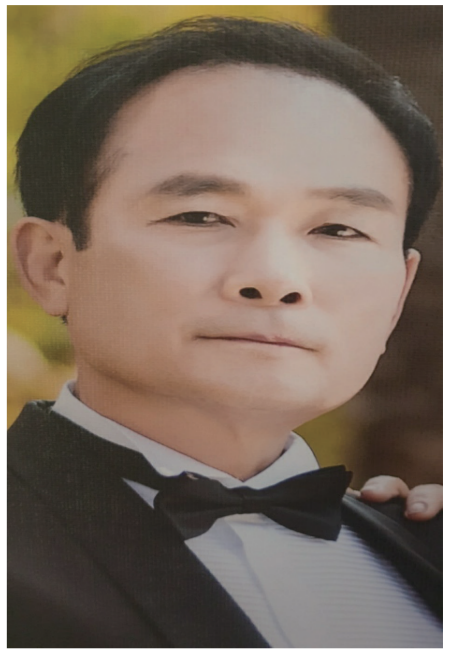
그런가닭에 이제 구미시는 그 어떠한 다른 시정 정책에 우선해서 구미시 반도체를 살릴 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말로만 지방화시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지방이 살아 갈 수 있도록 오히려 수도권 밀집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해서 지방이 살도록 해주어야 한다. 지방기업을 수도권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마치 벼룩이 간을 빠먹는 일과 진배없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될 일이다.

반도체 수도권 규제 완화야말로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온상지인 구미시에겐 덩싹 워진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비수도권 유일의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지정이란 허울좋은 가면’만달고는 그 어떤 의미도 없는 마치 구미시에 빈껍데기만 남겨 놓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어디 그뿐만인가? 지금 세계 거물들이 한(韓)기업 편파에서 설계를 하고 있어 향후 반도체 질서가 흔들릴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는 국정목표를 세운대로 지방화시대를 위해 국정을



문화매일 영남지사장 윤근수

펼쳐야 한다. 수도권에 반도체 산업을 밀어 주는 일은 더는 용인하여선 아니 될 일이다. 더군다나, 구미시를 반도체 특구 지정을 하였다면 그에 걸맞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전폭적인 자금지원을 비롯해 각종 지원과 혜택으로 구미시 반도체 산업을 실어 주는 거시적인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미시는 지난 20여년 전의 LG LCD 공장이 수도권인 경기도 파주에 넘어갔던 전철을 뼈저리게 자각해야 한다. 두 번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미시장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첩보와 정보, 그리고 소통을 통한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 구미시는 최고의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지정이란 자부심을 실제로 옮기어 갈 수 있도록 뼈저린 대오각성의 자세로 반도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구미시의 옛 영광을 다시 되찾아 올 것이라 확신해 보며 구미시장이자 전 구미시 공무원들의 분발을 통해 구미시의 미래 먹거리인 ‘구미 반도체 희망봉호’가 힘차게 향해 나가길 기원드린다.

Advertisement for Sangju featuring an industrial scene and the text: '기업하기 좋은 도시 For more success with SANGJU 더 큰 성공을 위한 선택'

Large advertisement for Yeosu featuring an airplane and the text: '항공물류중심 공항도시 의성 의성군'

오산시, 빈대 출현 우려에 숙박업·목욕장 특별점검 나서



오산시보건소가 전국적으로 빈대가 출몰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2주간 관내 숙박업 및 목욕장업 10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침대 매트리스 또는 바닥 매트를 들어 올려서 침대 모서리나 커버의 주름진 곳에 빈대의 부산물이나 배설물과 같은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업소 내 해충 방지를 위한 소독 실시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숙박업의 경우는 1인 사물함마다 객실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 세탁 여부를 확인하고, 목욕장업의 경우는 탈의실·옷장·목욕실 등 청소 매월 1회 이상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위생점검 시 각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소의 관리자에게 빈대 관련 안내와 함께 살충제 등을 배부하여 빈대 출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업소에 행정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다수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관내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생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천안시, 수능 끝...청소년 보호 합동캠페인

음주흡연 등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

천안시는 수능일인 지난 16일 동남구 신부동 일원에서 ‘청소년유해환경 합동계도·점검 및 유해환경 보호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거리 캠페인은 수능 이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이 노래방·PC방 등에서 음주·흡연하거나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방문하는 등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천안시 청소년시설 등 6개 기관·단체들이 함께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

해표시 부착,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행위 등 청소년보호법 의무·준수사항 전달했다.

이와함께 유해환경보호 홍보문을 전달하며 업주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수능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이 일탈행위를 벌이지 않도록 청소년 유해업소와 상호 협력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순천시, 수능 전후 기간 인파밀집 사고예방 합동점검 실시

순천시는 16일 수능 종료 후 인파밀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도심지역에 일시적으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젊은 층의 이동량이 많은 조례동 수산시장 사거리, 연향동 패션거리, 오천지구와 조례호수공원 일원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수능시험 종료 이후인 16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순천시 안전관리부서, 순천경찰서, 순천교육지원청, 순천청소년육성회 등의 총 40명이 흑시

모를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장을 순찰했다.

또한, 주말까지 상시 상황 체제를 유지하고 CCTV 종합관제센터를 통해 다중밀집 지역의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체가 없는 행사나 수능 이후처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서울시, 수능 마친 청소년 위해 다양하고 안전한 즐길거리 마련

수능 이후 활발한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특별점검 실시

서울시는 16일 진행된 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많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로특강, 공연 및 문화행사 등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수능 이후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한다.

(진로특강)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에서는 2023 미래진로특강 ‘다시 만난 인터뷰’를 11월 30일, 12월 1일 2일간 진행하며,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직업인의 생생한 직무 현장 이야기와 진로설계 경험을 들을 수 있다. 시립성북청소년센터에서는 예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의면접을 통해 면접 및 대화 스킬 등을 배울 수 있는 인터뷰

클래스를 12월 2일에 진행한다.

(문화행사) 시립청소년음악센터에서는 싱어송라이터 ‘적재’, 클래식 디바 ‘임선혜’,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함께하는 기획공연을 개최하며, 11월 18일 14시에는 서울시 청소년 동아리 대표 축제 ‘서울시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시청 분관 다목적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수능이후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능전·후 3주간 자치구,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으로 학교주변과 지역 변화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커피숍 등이 설치된 밀실형태의 룸카페, 만화카페, 보드카페 등 신년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중점 점검·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훈 등 청소년 유해행위 목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의 부착 여부 등이 다.

또한, 11월 16일부터 17일 23시까지 신림역, 연신내 일대, 천호 로데오 거리 인근 등 청소년 밀집지역 11곳에서 청소년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경찰서 등 35개 연합으로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실시해 다양한 청소년 상담·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인식 개선 활동(캠페인)을 진행한다.

가정 내 갈등, 학교폭력, 학업스트레스 등 고민을 나누고 싶은 청소년과 학부모 포함, 누구나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상담 활동 외에도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된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수능시험을 준비하느라 노력한 청소년 모두가 좋은 결실을 이루기를 바란다”며, “서울시가 준비한 수능 이후 프로그램과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활동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희망찬 수능 너머를 계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Sound on Sound Vol.1 적재 아티스트

2023년 11월 25일 (토) 15:00
서울시립청소년음악센터 3층 블랙박스 공연장

관람대상 만9~24세 청소년
예매오픈 2023년 11월 17일 (금) 17:00

서울특별시

울진해경,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너울성 파도 주의

울진해양경찰서는 11월 17일 저녁 동해안바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예정임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11월 17일 18:00부터 11월 19일 일요일 24:00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아침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 중심을 최대풍속 초속 13m 이상 강한 서풍이 불면서 최대

3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알리는 것으로, 주의보 발령 시 울진해경에서는 해안가 및 갯바위 도보순찰 등 강화된 안전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장문화/기자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등 추락 주의 예방점검을 중점으로 안전 계도에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해안가 또는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는 특히 갑작스러운 돌풍 또는 너울성 파도에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출입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울산해양경찰서는 현재 “강풍·풍랑예비특보” 발표 중이며, 11월 17일 밤부터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높은 너울성 파도 등 기상악화가 예상되기에 11월 17일 13:00부터 울산해경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발령하여 연안해역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

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울산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파·출장소 및 지자체 전광판, 키오스크 등을 이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너울성 파도 등 기상악화에 따른 연안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국민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규진/기자



'오늘도 사랑스럽게' 차은우, 몸 아끼지 않는 연기 투혼! '출구 없는 매력 방출'



'오늘도 사랑스럽게'가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는 5, 6회 메이킹을 공개했다. 지난 15일(수) 밤 9시 방송된 MBC 수요드라마 '오늘도 사랑스럽게'(연출 김대웅/극본 백민석/제작 그룹에이트, 판타지오/제작 투자 에이앤이 코리아) 5, 6회에서는 서로의 상처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어느새 감정이 깊어진 진서원(차은우 분)과 한해나(박규영 분)의 서사가 시청자들의 연애 세포를 제대로 일깨웠다. 방송 말미, 수학여행을 떠나 함께 시간을 보내던 서원과 해나의 길고 긴 눈맞춤이 달달함을 최고치에 이르게 했고, 모든 것이 완벽한 6회 데이트 엔딩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 시청자들을 '오사개 앞이'로 초대했다. 이 가운데, 5, 6회 연속 방송 직후 공개된 메이킹 영상에는 언제나 즐거운 분위기 속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차은우(진서원 역), 박규영(한해나 역), 이현우(이보경 역) 등의 모습이 담겼다. 먼저 차은우는 극 중 서원의 어릴 적 트라우마가 공개되는 과거 씬에서 몸을 아끼지 않는 투혼을 선보여 시선을 강탈했다. 그는 김민석(강은환 역)으로부터 맞은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직접 소화하는 등 열정 가득한 모습을 보였고 보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독보적 열연으로 출구 없는 매력을 대방출했다. 모두를 즐겁게 만든 5회 엔딩 비하인드도 공개됐다. 촬영 쉬는 시간 차은우는 장꾸미 가득한 모습으로 박규영에게 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박규영은 그의 장난을 받아주며 사랑스러운 케미를 뽐냈다. 특히 촬영이 먼저 끝난 박규영이 곧 집에 갈 생각에 신나 있지 차은우는 "끝까지 남아있겠다"라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박규영은 "마음만은 함께 하지"라는 능청스러운 말로 현장을 있던 모두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에 차은우는 "차 키 좀 주세요"라는 한마디로 폭소탄을 날리는 등 특유의 유쾌함으로 촬영 내내 스태프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6회 메이킹에서도 차은우와 박규영의 호흡은 돋보였다. 두 사람은 중간중간 모니터링을 빼놓지 않고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아쉬운 부분을 체크하며 연기를 이어갔다. 카메라 밖에서도 사이좋게 모니터링하는 이들의 모습 또한 시청자들을 설레게 만들었다. '오늘도 사랑스럽게'만의 화기애애한 현장 분위기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차은우, 박규영, 이현우, 송영아(전송이 역)를

비롯한 모든 배우들이 학교에서 기념사진을 찍고자 한자리에 모였지만 알고 보니 소품 사진을 찍는 것으로 밝혀져 반전 재미를 안겼다. 차은우와 이현우는 개나 역의 핀아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고 곧바로 이어진 촬영에서 말하지 않아도 척척 알아듣는 환상의 호흡을 과시하며 촬영을 마무리했다. 두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 중인 핀아의 치명적인 귀여움 또한 보는 이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 수학여행 비하인드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유일하게 학교에서 해나의 특별한 저주를 알고 있는 윤현수(최을 역)는 개나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극 중 해나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뽀뽀요?"라는 갑작스러운 상황극으로 티셔츠에 말을 걸었고 그 옆에 있던 박규영은 이에 응답하는 센스 만점 행동으로 현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사랑스러운 '댕머드는' 이야기로 매주 수요일 밤 힐링으로 꽉 채우는 MBC 수요드라마 '오늘도 사랑스럽게' 7회는 오는 22일(수) 밤 9시에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힘센여자 강남순' 이유미 X 옹성우, 설렘이美 쳤다! 수사도 사랑도 올킬! '설렘 자극' 모먼트 3

'힘센여자 강남순' 이유미, 옹성우가 괴력만큼이나 강력한 설렘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JTBC 토일드라마 '힘센여자 강남순'(극본 백미경, 연출 김정식·이경식, 제작 바른손씨엔씨·스토리퍼닉스·SLL)가 회를 거듭할수록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모녀 히어로의 거침없는 활약에 지난 12회 시청률이 수도권 9.0%, 분당 최고 10.0%(닐스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호평 속 비지상파 1위를 이어갔다. 모녀 히어로가 선사하는 통쾌한 카타르시스뿐만 아니라, '순식커플' 강남순(이유미 분)과 강희식(옹성우 분)의 직진 로맨스는 유쾌한 설렘을 더하고 있다. 서로에게 '심쿵'하면 울리는 말(馬) '빠빠'의 종소리는 기분 좋은 웃음을 유발하기도. 솔직해서 더 강력한 강남순과 강희식의 '힘센' 플러팅 역시 화제다. 이에 중영을 4회 앞두고 시청자들의 광대 미소를 유발한 '설렘' 모먼트를 짚어봤다. # 폭 들어오는 강남순의 돌직구 고백 혹은 플러팅(?) "그냥 나 사귀면 되지!" 강남순과 강희식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안식처이자 든든한 지원군이다. 소외된 약자들 곁에서 빛이 되고 싶다는 강남순. 그 꿈을 돕겠다는 강희식의 한 마디는 따스한 설렘을 안겼다. 서로에게 향하는 마음을 자각하지 못한 두 사람. 강남순의 돌직구 고백은 관계의 변화를 일으켰다. 강희식이 무심결에 뱉

은 "너 볼 빨개지니까 좀 예쁘다"라는 말에 두근거림을 느낀 강남순. 낯선 감정에 당황한 강남순이 몽골에 볼 빨간 여자들 많다고 돌려대자 강희식은 몽골에 한 번 가봐야겠다며 맞받아쳤다. 강희식의 농담에 다급해진 강남순은 속마음을 들키고 말았다. "가긴 어딜가. 그냥 나 사귀면 되지!"라는 돌직구 고백으로 강희식의 마음에 종소리를 울린 것. 강남순은 '비 참대 해르태'라며 몽골어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했다. 강남순과 강희식의 설레는 변화는 시청자들을 미소 짓게 했다. # '순식커플' 강남순 X 강희식의 두근두근 첫 입맞춤 "나 한 입 주라" 강남순과 강희식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가 됐다. 집까지 데려다준다는 류시오(변우석 분)의 말에 강남순은 당황했고, 강희식이 위기를 바로 감지했다. 자신의 집으로 가라고 알려준 것. 위기를 벗어난 강남순은 긴장이 풀린 채 강희식의 집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세상 편하게 잠이든 강남순을 바라보다 얼떨결에 입맞춤을 하게 된 강희식. 갑작스러운 첫 입맞춤에 두근거림을 감추지 못하는 강남순과 강희식의 모습이 풋풋함을 더했다. 썩스러운 마음에 배가 고프다며 화제를 바꾸는 강희식에게 강남순은 장난을 멈추지 않았다. "나 한 입 주라"는 강남순의 사랑스러운 장난에 강희식의 진심 버튼이 제대로 눌리고 말았다. 강남순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강희식. '순식커플'의 달콤한 입맞

춤에 시청자들 역시 '심쿵'했다. # "지금부터 힘쓰지 마" 강희식의 밀당 없는 직진 모드 ON 강희식은 폭주하는 류시오로부터 강남순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류시오가 '강남순 패밀리'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강희식은 강남순에게 당분간 자신의 집에서 지낼 것을 제안했다.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강희식의 집에서 지내게 된 강남순. 소파에서 잠든 강희식을 발견한 강남순은 그를 안아주고 침실로 향했다. 잠이 깬 강희식은 강남순을 붙잡아 자신의 옆에 앉았다. 이어진 강희식의 직진은 설렘을 한껏 끌어올렸다. "지금부터 힘쓰지 마"라면서 강남순에게 입을 맞추는 강희식의 모습은 앞으로의 이야기를 더욱 기대케 했다. '사랑하는 남자와 첫날밤을 보낼 것'이라는 강남순의 비범한 각오에 당황했던 강희식의 변화, 밀당 없는 직진이 더욱 설레는 이유다. 한편, 강남순과 황금주(김정은 분), 강희식이 '마약 빌런' 류시오와 화끈한 전면전을 시작했다. 두고 연구소에 수감함을 감지한 강남순, 마약 유통책 태리(한다희 분) 검거에 성공한 황금주와 강희식의 활약은 짜릿했다. 그런 류시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이들의 맞대결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궁금해진다. JTBC 토일드라마 '힘센여자 강남순' 13회는 오는 18일(토)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동해안 청정해역! 안전한 우리 수산물!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2023년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아너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에 나눔의 선한 영향력과 가치를 일깨워 주기를 바란다"고 밝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16일 (목) 18시, 호텔 수성 피오니홀에서 개최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2023년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에 참석해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 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으로 대구 회원은 총 231명, 전국 회원은 3,249명이 가입돼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시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아너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에 나눔의 선한 영향력과 가치를 일깨워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준표/기자

선택형 진로 체험으로 나만의 꿈길을 디자인해요!

안동서부초, 찾아가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안동시 안동서부초등학교(교장 김의식)는 11월 17일(금)과 11월 23일(목) 양일에 걸쳐 4~6학년を対象으로 방문형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진로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하고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을 설계하는 능력과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6학년은 제과사, 안무가, 쇼콜라티에, 캘리그래퍼 체험, 5학년은 K-pop 보컬, 홀로그램 전문가, 3D모델링 전문가, 예술심리치료사, 캘리그래퍼 4학년은 마술사, 방송특수분장사, 제과사, 범죄과학수사관 체험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학생들은 평소 교과수업 시간에 할 수 없는 체험을 함으로써 다양한 직업 세계와 정보화 사회에 맞는 꿈을 스스로 디자인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6학년 박O소 학생은 "제과사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캐릭터 쿠키 만들기 체험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K-POP 장르 댄스를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실습할 때는 무척 신나고 좋았다."고 말했다.

김의식 교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각자의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고 가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서대문구, 녹색탐험대를 찾아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반갑다!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목표, 이제 국가인증 프로그램으로 만나다!"

서대문구는 '앞서가는 지구IN, 녹색탐험대를 찾아라!' 프로그램이 최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 인증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참여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청소년정책분야의 국가인증제도다.

청소년들은 해당 환경교육 참여 후 청소년수련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활동기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앞서가는 지구IN, 서대문구 녹색탐험대를 찾아라!(제5931A09A-11691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소양교육과 맞춤형 환경과학실험 및 체험활동으로 이뤄져 있다.

청소년들은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목표 알아보기 ▲우리동네 환경퀴즈 ▲자연물을 활용한 자연공작 및 과학실험 등 다채로운 환경 교육에 참여한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국가에서 인증한 안전하고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과 친환경 생활의 중요성이 미래세대에 잘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홍제천로 111)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 경상북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사랑으로 버무린 감칠맛~광진구, 따뜻한 겨울 위한 '김장 담가 드리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동참, 어려운 이웃에 2,100kg 전하며 온정 나눠

광진구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기원하며 '사랑의 김장 나눔' 릴레이를 진행했다.

지난 14~15일은 광진구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사랑의 김장 담가 드리기'가 실시됐다.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자원봉사자 등 200명이 한뫼를 모아 김치 9,000kg을 담갔다.

먼저, 첫날 14일은 김장축을 만들었다. 배추 2,600포기와 무 1,000개를 깨끗이 손질하고, 고춧가루와 생강, 쪽파, 젓갈 등 갖가지 재료를 활용해 감칠맛을 더했다.

둘째 날엔 김치 속 넣기와 포장 작업을 벌였다. 배추 이파리를 하나씩 들추며 양념을 속속히 버무리고, 상자 900개에 김치 10kg씩 담갔다. 김치 상자는 저소득 가구와 구립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단체 등 복지시설에 전달된다.

바르게살기운동 광진구협의회에서도 힘을 보탤다. 16~17일 양일간 회원 90명이 모여 김치 2,100kg 담그기에 돌입, 첫날 재료 준비를 마친 뒤 다음 날 양념 속을 채워냈다.

영하를 뚫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참여해 온정을 나눴다. 이날 만든 김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10가구에 배부될 예정이다.

김경호 구청장도 김장 릴레이에 참여해 일손을 보탤다. 김 구청장은 "추운 날씨에도 주변 이웃을 위해 김장 나눔을 실천해 준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울거울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는 20일은 광진복지재단 주관으로 나루아트센터 광장에서 '제1회 광진 사랑의 김장 축제'가 개최된다. 10,000kg의

김치를 담가 소외계층의 겨울철 식생활 안정에 힘쓸 계획이다.

강성원/기자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어르신은 왜 접종이 필요한가요?

- ✓ 변이바이러스에 의해 코로나19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새로운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 65세 이상 어르신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 65세 이상은 65세 미만에 비해 치명률이 약 40배 높습니다.
 - 2022년 사망원인 3위는 코로나19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91.9%로 나타났습니다.
* 통계청,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2023.9.21.)
 - WHO, 미, 영, 일, 호주 등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 ✓ 이번 신규 백신은 현재 발생하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맞춤형 백신입니다.**

 - 기존 백신에 비해 현재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최대 4배 효과가 높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 입원·사망 위험을 약 1/20로 줄일 수 있습니다.

'23-' 24절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 접종백신** 현재 변이에 맞춘 신규백신(XBB기반)
- 권고대상**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및 종사자
| **접종대상** | 12세 이상(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접종가능)
- 접종일정** 2023.10.19.(목)~2024.3.31.(일)

접종 일정	접종 대상
2023.10.19.(목)~2024.3.31.(일)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및 종사자
2023.11.1.(수)~2024.3.31.(일)	그 외 12-64세

-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병 의원) 및 보건소

 - 사전 예약 없이도 **당일**에 바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 사전예약도 가능합니다: 1339 전화예약 및 누리집(<https://ncvr.kdca.go.kr>) 접속 (대리 예약 가능)



잠깐,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같이 맞아도 될까요?

- ▶ 가능하다면 두 백신을 같은 날 동시에 맞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 ▶ 지난 동절기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같이 맞은 분들의 이상사례 신고율은 코로나19만 맞은 분들에 비해 접종부위 통증 등이 약 40% 낮았습니다.



질병관리청



경상북도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